



제 53회 인천 시민의 날 기념 시민 대화합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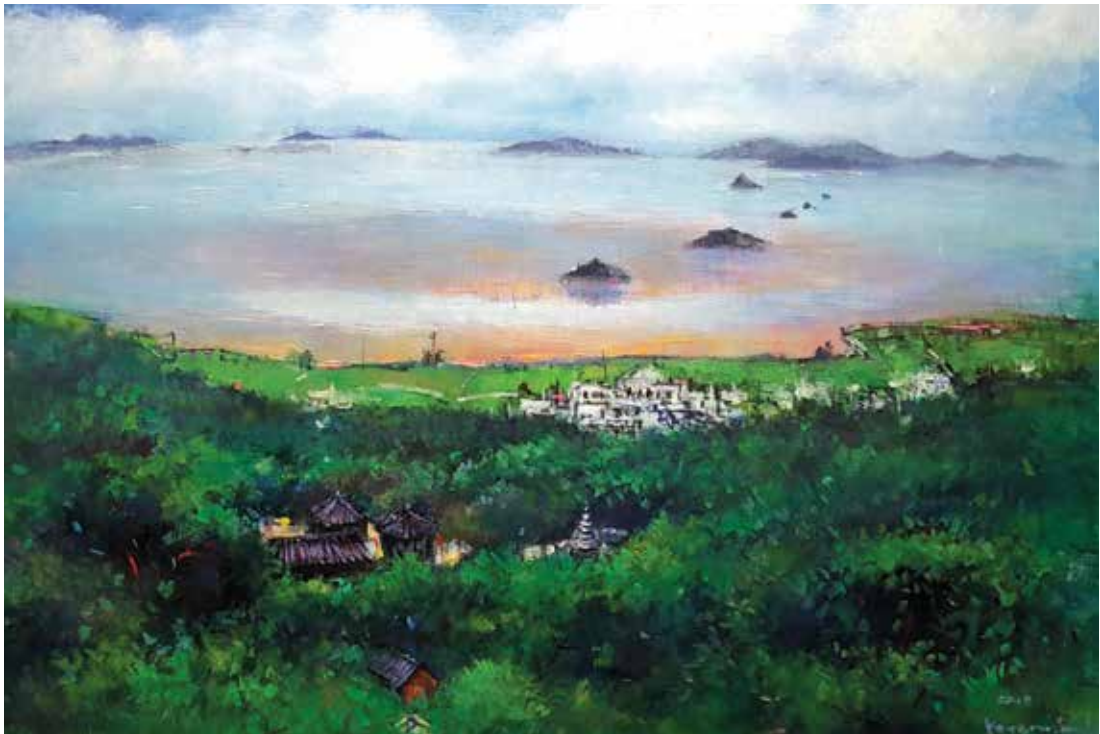
2017년 10월 14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시민의 날 기념식 식전공연 / 선수단 입장식 / 시민상 시상
시민화합 한마당 시민화합운동회 / 생활체육대회 결승 / 종목별 시상식
이벤트 행사 초청가수 공연 / 시민 체험존 운영 / 경품 이벤트

10
OCTOBER

열 번째 길
젊은 강화로





강화-석모도
116.5 x 80(cm) oil on canvas 2017

막힘없이 통하는 지혜의 섬, 석모도

강화도 서편 외포에서 마주 보이는 석포로 이어진 석모도(席毛島).
바위 모퉁이에 물결이 부서지는 모진 섬이지만,
3대 관음 도량 중 하나인 보문사가 자리 잡은 섬.

낙가산 중턱 눈썹바위 아래 관음보살이 바다를 굽어봅니다.
앞바다 멀리 줄지어선 주문도, 불음도, 분단선 가까이 말도까지
막힘없는 보문(普門)의 지혜, 맑은 하늘 아래 하나로 펼쳐집니다.

이 아름다움이 저 바다처럼 막힘없이 흐르기를...

발행처 인천광역시__발행일 2017년 10월 1일__발행인 인천광역시장__편집인 박혜란(브랜드담당관)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 팀장)__취재 편집위원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__사진 김성환·류창현·홍승훈·최준근
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__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INCHEON MONTHLY MAGAZINE__2017 OCTOBER__VOL. 286

굿모닝인천



표지사진 류창현

열 번째 길; 젊은 강화로
(동문 안길에서, 청년몰의 사진가 김재민)

06_드론 찰칵, 달리 본다 강화 읍내

10_강화 읍내 골목 - 근대 건축 - 핫 스폿 - 맛 집 두벽두벽 - 강도(江都)의 꿈 프로젝트

36_화제의 인물 ‘쇼미더머니 시즌6’ 우승 ‘행주’ 40_문화 캘린더 경인방송 시민음악회 外 42_박물관 이야기

44_시정 뉴스 KTX·GTX 인천에 달린다 外 48_의정 뉴스 인천시의원 34명 전원, ‘나눔리더’ 가입 外

50_컬러링.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52_Info Box ‘2040 차세대 여성 리더·미래 여성 인재’ 과정 교육생 모집 外

57_인천의 생물 이야기 큰주홍부전나비 58_모닝 커피 한잔 59_몽(夢)땅 인천 골목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 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 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032-440-8306

인천 통통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다면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홍보콘텐츠 블로그 ‘인천 에피소드&해피소드’
(blog.naver.com/happylong7)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allwaysincheon)
카카오토리(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allways_incheon)
웨이보(www.weibo.com/incheon)

인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께서 120미추홀콜센터에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궁금할 땐 언제나 120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 시민의 날이 언제인가요?

인천 시민의 날은 10월 15일로, 올해 ‘제 53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시민 대화합 한마당’은 이달 14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장과 주요 인사를 비롯해 시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하며 축제 한마당과 경인고속도로 이관 선포식도 열립니다.

강화도 새우젓 축제가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제14회 강화도 새우젓 축제’는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외포리 정포항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신선하고 품질 좋은 강화 새우젓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천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인천 시티투어 버스는 송도에서 월미도를 운행하는 개항장 노선과 강화도 테마투어 노선이 있습니다. 개항장 코스는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출발 시간 기준, 매주 월요일 휴무) 운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관광공사 ☎ 772-4000(www.travelicn.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주민입니다. 재산세 청구 관련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인 ‘마을세무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을세무사는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기 힘든 납세자들에게 인천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미추홀콜센터(☎ 120)로 전화를 하면 지정된 마을세무사와 바로 연결돼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해당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해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내일배움 카드’는 취업과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실업자)들이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460-47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굿모닝인천’ 9월호에 소개된 ‘버스로 갈 수 있는 인천 섬’ 관련 답변 내용을 정정합니다.
현재 작약도는 일반인들이 관광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합니다.

시민 소통



현장 직소민원실 운영

시민의 목소리, 현장에서 듣다

우리 시가 시민이 시장에게 건의하는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달 14일 계양구 계양역광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처리하기 위한 ‘1일 현장 직소민원실’을 운영했다.

‘1일 현장 직소민원실’은 시장실의 문턱을 낮춰 시민의 진정·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여과 없이 듣고 처리하기 위한 시책이다. 시민의 어려움을 덜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1일 현장 직소민원실’은 분기별 1회씩 총 4회 실시하며, 지난 3월 30일 동인천역 지하상가, 6월 29일 부평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시는 정례화된 소통 채널 외에도 언제든지 시민의 어려움을 듣고 시정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시장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문을 연 직소민원실은, 그동안 총 1천88건의 각종 진정과 건의사항을 접수해 시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696건을 해결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행복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진정·건의·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은 평상시 직소민원실(☎ 440-2018, 2023)로 연락해 상담하면 된다.

문의 : 시 소통담당관실 ☎ 440-2018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인천의 맛과 멋이 꿈틀대다

독자 석지혜(31·남동구 논현동)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인천’이라는 이름만 봐도 엄마 품에 안기듯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만큼 ‘인천’은 제게 파스한 보금자리 같은 곳입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은 SNS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만의 맛과 멋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말이죠. 3년 동안, 시간이 날 때면 인천 맛집이나 명소를 찾아 돌아다니며 게시물을 업로드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색다른 곳을 찾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인천의 명소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퇴근 길 지하철에서 ‘굿모닝인천’을 발견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인천의 명소와 음식들,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특히 ‘테이스티 로드 인천’에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흥미로운 글과 맛있는 사진으로 채워져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가오는 주말, 저는 가족들과 함께 화평동에 가 있을 겁니다. 맛있는 냉면을 먹고 알찬 게시물이 될지도 작성할 수 있게 되겠지요.

‘굿모닝인천’을 접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인천 시민이라면, 또 앞으로 인천에서 살아 갈 사람이라면 ‘꼭 한번 봐야할 책’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인천의 맛과 멋이 ‘굿모닝인천’ 안에 꿈틀대고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저처럼 ‘굿모닝인천’을 통해 몰랐던 인천의 가치를 발견해 인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드론 찰칵, 달리 본다.

강화읍내

江華邑
강화

읍내 땅 밑 ‘고려’ 있다

강화는 도읍지(都邑地)였다. 39년간 고려의 ‘서울’이었다. 그래서 ‘강도(江都)’라 불렸다. 고려의 도읍지가 된 ‘역사’를 언뜻 들으면 실망이다. 피난처였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이 건설한 몽골 제국은 대륙의 동쪽 끝으로 말발굽을 향했다. 고려는 1231년 125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몽골에 맞서 싸웠다. 1차 침입 이후 고려는 도읍을 옮길 것을 결정했다. 바다가 없는 몽골은 물에 아주 약했다. 개경(송도)에서 가까운 강화도가 제격이었다. 바다에 둘러싸인 섬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형이 개경과 비슷했다.

급하게 천도(遷都)했지만 강도는 허술하게 건설되지 않았다.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그대로 본 떠 만들었다. 도성(都城)을 만들고 궁궐은 물론 관청, 사원, 거주지, 시장 등을 조성했다. 지명도 그대로 가져왔다. 또 하나의 개경이 건설됐다.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드론 촬영 홍승훈 자유사진가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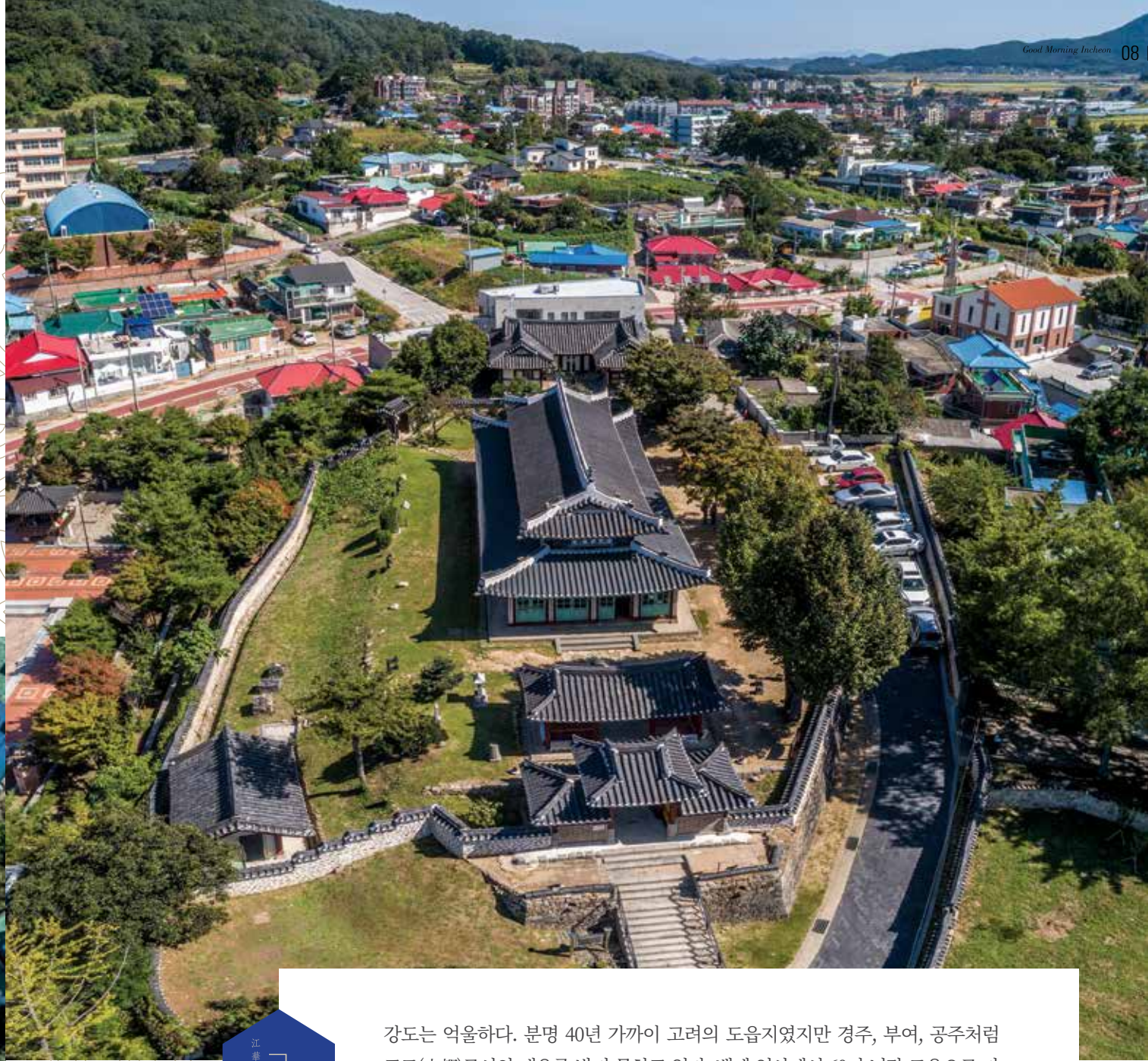
서울 용문역 인근
강화읍내



강화읍내



동문(東門) 일대(위)
옛 평화직물(소창 체험관) 주변(아래)



다함경궁회 강화성터 일대

고려

강도는 억울하다. 분명 40년 가까이 고려의 도읍지였지만 경주, 부여, 공주처럼 고도(古都)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백제 역사에서 60여 년간 도읍으로 자리했던 공주가 고도로 인식되는 것과 비교된다.

1270년 고려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강도는 쇠락했다. 강화도는 그저 하나의 섬으로 돌아갔다. 궁궐도 사원도 주인을 잃었다. 그리곤 모든 게 묻혔다. 다행히 도성을 감싸 안았던 성곽(토성)은 남아 있다. 현재 보이는 것만 약 11km이다. 원래 성곽은 16~1km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강도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고려 궁궐은 현재의 강화읍 관청리 일대에 있었다. 스러진 고려 위에 조선이 섰고 이후 개항기,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를 거쳤다. 그러면서 고려의 색채는 완전히 없어졌다. 그곳은 강화군의 읍내가 됐다. 현재의 읍내 사람들은 고려를 딛고 다닌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땅 밑에는 분명 고려가 있다.

멈.춘. 시간 속 ————— 동문 안길 사람들.

동문 안길 골목. 도심에서 뚝 떨어진 강화읍에서도 시간이 가장 더디게 가는 곳. 나지막한 집이 다닥다닥 붙은 길을 걷노라면,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확인하게 된다. 모든 것이 그대로 여서 고마운 동네, 그 안에 변함없이 머무는 사람들을 만났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강화 읍내

골목 두벅두벅



동미이발관

읍에서도
가장 시골스러운

시골 강화읍에서도 가장 후미진 동네, 동문 안길. 오래되어 어스러져가는 골목을 어슬렁거린다. 칠이 벗겨진 문, 허물어가는 벽, 원색으로 ‘선탱’한 창문…. 아직 이런 동네가 있나 싶다. 낡고 오래됐어도 있을 건 다 있다. ‘동미 이발관’ ‘서울 오락실’ ‘현대 사진관’ ‘서촌 세탁소’…. 이름도 참 정겹다.

골목을 거닐다 한 이발관 앞에서 시선을 빼앗긴다. 담벼락을 가득 메운 초록 넝쿨 사이로 하양, 빨강, 파랑, 이발소를 알리는 회전봉이 뱅글뱅글 돌아간다. 인기척에 주인 어르신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다. 김천수(71) 할아버지는 강산이 두 번 변하는 동안 이 자리에서 가위를 잡았다. 한창때는 외지에서 이발소를 하고 사업도 크게 했다. 다 지난 일이다.

“노느니 뭐 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담뱃값이나 벌려고 나오는 거지.” 순간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면허증이 눈에 들어온다. ‘용사 면허증’. 세월의 흔적이 앞 글자 ‘이’를 지워버렸다. 1968년, 스무 살 청년은 배다리에서 애관극장으로 넘어가는 언덕에 자리한 미래고등기술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개선 ‘용사’처럼 당당하게 면허증을 거머쥐었다. 가게 한편엔 할아버지의 손때 묻은 가위며 면도기, 빗, 드라이어 등 이발 도구가 가지런히 놓였다. 세면대에는 머리를 감을 때 쓰는 파란 바가지가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오래된 이발소에서 피어나는 면도 거품 냄새가 포근하다.



1968년에 딴 ‘용사 면허증’
세월의 흔적이 앞 글자 ‘이’를 지워버렸다.

드라마 속 환상과 삶,
그 사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나지막한 집들이 서로에게 기대 선 골목. 오래되어 낡고 고단하지만 따스한 그네들의 일상이 브라운관에 담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산된 이미지를 찾아 세상 사람도 이 동네 주민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드라마 ‘전설의 마녀’에 나오던 빵집은 근사한 카페가 됐다. 앞에는 관광객을 위한 포토 존도 그럴싸하게 꾸며졌다. 동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지만, 가게 주인은 영락없이 푸근한 동네 주민이다. 민화숙(52) 씨는 ‘강화도에서 다리를 못 건너봤다’라고 농을 던질 정도로 이 땅을 떠난 적이 없는 토박이다. 읍내 큰길가에서 식당을 하다 임대료가 싼 이 골목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는 정겨운 이 동네가 마음에 든다. “옛 모습 그대로라서 좋아요. 지금은 그 지역만의 스토리를 무시하고 어딜 가나 획일적으로 도시를 바꾸잖아요. 반면 이 동네는 우리나라 30, 40년 전의 정서가 고스란히 살아 있어요.”



“강화읍에서 변화가 제일 더딘 동네가 여기예요.
사람들도 예전 그대로고,
그래도 살기 좋으니 다들 안 떠나는 거죠.”



카페 앞 ‘서촌 세탁소’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 이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고말고.” 몇 년 전 취재차 만났던 서촌 세탁소 아저씨와 재회했다. 이상철(57) 씨가 20여 년간 꾸려온 세탁소는 드라마 세트장으로 쓰이면서 번듯하게 새 단장을 했다. 상호도 ‘럭키 세탁소’에서 아예 드라마 속 이름으로 바뀌 달았다. 그동안 달라진 게 있느냐 물으니, 그럴 게 뭐 있겠느냐는 답이 돌아온다. “드라마야 종종 찍지만 우리야 상관있나. 강화읍에서 변화가 제일 더딘 동네가 여기예요. 사람들도 예전 그대로고. 그래도 살기 좋으니 다들 안 떠나는 거죠.”

서촌 세탁소

그래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

머무르고 싶어도, 떠나야만 하는 사람도 있다. 골목 어귀에는 한 지붕 아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현대 사진관’과 ‘현대 옷 수선’이 있다. 이제 지난 시간을 뒤로 하고 이별을 고해야 한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 후면 그 집이 헐리고 도로가 난다고 했다. 며칠 전에는 동네에 하나밖에 없던 구멍가게가 건물의 잔해만 남기고 쓸쓸히 사라졌다.

머지않아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
“일흔 살까지는 하려고 했어. 아직 5년이 더 남았는데…”



미안한 마음에 한참을 머뭇거리다 ‘현대 옷 수선’의 문을 열었다. 주인 어르신 의 표정이 밝지 않다. 나근오(65) 할아버지는 열다섯 살 때부터 실과 바늘을 손에 쥐었다. 배고픈 시절, 먹고살기 위해선 기술을 배워야만 했다. 매일 눈물을 삼키며 일을 익혔다. 잘못이라도 하면 옷 만들 때 쓰는 연장이 바로 날라 왔다. 좋은 날도 있었다. 40년 전 강화에 사람과 돈이 넘칠 때는 수입도 넘쳤다. 공무원 월급이 40만 원일 때 하루에 6, 7만 원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잘 나가던 ‘테일러’도 시대의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일이 점점 줄더니 줄곧 내리막을 걸었다. 10년 전에는 양복집에서 수선집으로 간판을 바꿔달아야 했다. 그래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려 했는데, 머지않아 육중한 포클레인이 정든 삶의 터전을 파헤칠 것이다. “일흔 살까지는 하려고 했어. 아직 5년이 더 남았는데…”



뷰파인더 너머,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길

이 작은 사진관이 한때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매출이 높았다니, 믿기지 않는다. “대단하죠. 이 작은 동네에서. 그래도 그때는 인구가 많았어요. 이 골목에 예식장이 있었는데 하루에 다섯 번 식을 올렸지요. 그때 강화 사람들은 죄다 찍은 것 같아요.” 한영혜(69) 씨는 일찍이 병환으로 누운 남편을 대신해 오랜 세월 카메라를 들었다.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사진관을 차린, 사령부 사진병 출신의 든든한 남편이었다. 아들은 또 아버지 대신 카메라를 짊어 맨 어머니가 안쓰러워 서울에서 사진을 배웠다. 아픈 아버지를 보고 절대 사진은 안 하겠다고 다짐한 아들이었다. “우리 엄마 예쁘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들 나의환(43) 씨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다정하게 시선을 맞춘다. 미소 짓고 있지만 저릿한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열심히 땀 흘리는 가운데도 세상은 변해만 갔다.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대신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필름 사진을 현상하지 않으면서, 사진관은 세상에서 잊혀 갔다. 이제 추억이 쌓인 공간조차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덕분에 이 카메라를 오랜만에 만져보네요. 강화의 모든 것을 지켜보던 카메라예요.” 살아가기 위해, 사진사의 아내에서 사진사가 된 여인. 그녀가 뷰파인더 너머로 바라보던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았으리라. 지나온 시간이 빛바랜 흑백이었다면, 앞날엔 총천연색 세상이 펼쳐지길 소망한다.



살아가기 위해, 사진사의 아내에서 사진사가 된 여인.
그녀가 바라본 뷰파인더 너머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았으리라.

같은 하늘

다른 시간을 품은 공간

옛 조양방직



장지영 가옥



강화에는 무수한 시간의 층이 쌓여 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강화 깊숙이 들어갈수록 같은 하늘 다른 시간을 만난다. 가을이라지만 유난히도 맑은 날, 강화읍에 있는 근대 건축을 찾아 길을 나선다. 어느 집은 높다란 담장 안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주인 잘 만난 집은 묵은 먼지를 털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강화 읍내

근대 건축 무늬무늬

옛 조양방직 공장.
이끼가 움트던 폐허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옛 조양방직

‘살려 달라’ 건물이 말을 걸다

수더분한 강화 땅에, 한때 시커먼 공장들이 쉴 새 없이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구불구불 골목길을 지나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조양방직을 찾았다. 육중한 몸집의 콘크리트 건물이 세월의 무게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 강화도의 실업가 홍재묵과 홍재용이 ‘조양방직’을 세우면서 강화의 직물산업이 가내수공업에서 공장화됐다.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들고 밤늦도록 직물 짜는 기계가 돌아갔다. 하지만 1990년대 현대식 섬유공장이 생기고 신소재 섬유가 나오면서, 강화 직물산업은 내리막을 걸었다. 멈춘 시간 속 이끼가 움트던 폐허에, 다시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건물이 ‘살려 달라’ ‘도와 달라’ 말을 걸었어요.” 이용철(52) 씨는 조양방직 터에 고물을 찾으러 왔다 아예 건물에 손을 대기 이르렀다. 당시 공장 터는 쇠 파이프 더미에 뒤덮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다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는 무너져가는 폐허에서 시간의 연속성이 낳은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세월의 무게를 떠받든 트러스 구조의 이끌림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래, 같이 가보자’ 결심을 했다.

“건물이 마치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을 만지면서 무언가를 부수고 바꾸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너져가는 건물이 예쁘잖아요. 잘 살려야죠.” 올해 말이면, 그의 손길과 숨결이 스민 갤러리 카페가 문을 연다. 원래 있던 것처럼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 말에 더욱 기대가 된다. 조양방직 공장이 자욱이 쌓인 세월의 먼지를 털고,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그날이.

옛 건물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이용철 씨의 ‘귀한’ 손.
그는 한사코 사진 찍기를 거절했다.
“이 건물만 찍으세요. 나는 이곳을 주물럭거리다 가는 사람이지만, 여긴 영원할 테니까.”



옛 평화방직

어제의 역사, 그리고 오늘의 삶

강화 직물산업은 197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조양방직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직물공장 130여 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멋쟁이들의 필수품이었던 웹블리 넥타이가 쏟아져 나오고, 이불 안감이나 기저귀감으로 쓰던 무명 천이 ‘강화소창’이란 이름으로 퍼져 나갔다. 지금은 네 개의 공장이 가내수공업을 하며 가까스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공장주가 여든이 넘는 어르신이라 언제 손을 놓을지 모른다.

그나마 강화군이 ‘인천 가치 재창조 선도 사업’으로 소창의 명성을 되찾으려 한다니 다행스럽다. 그 첫걸음으로 옛 평화직물이 소창 체험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1956년에 역사를 시작한 이 공장은 1990년대 문 닫는 날까지 난초와 봉황이 새겨진 각색 양단을 생산했다. “군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에 소창 체험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은하직물이 올해까지만 운영한다고 해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 기계를 하나둘 들여올 계획입니다.” 강화군 문화관광과 중인선 팀장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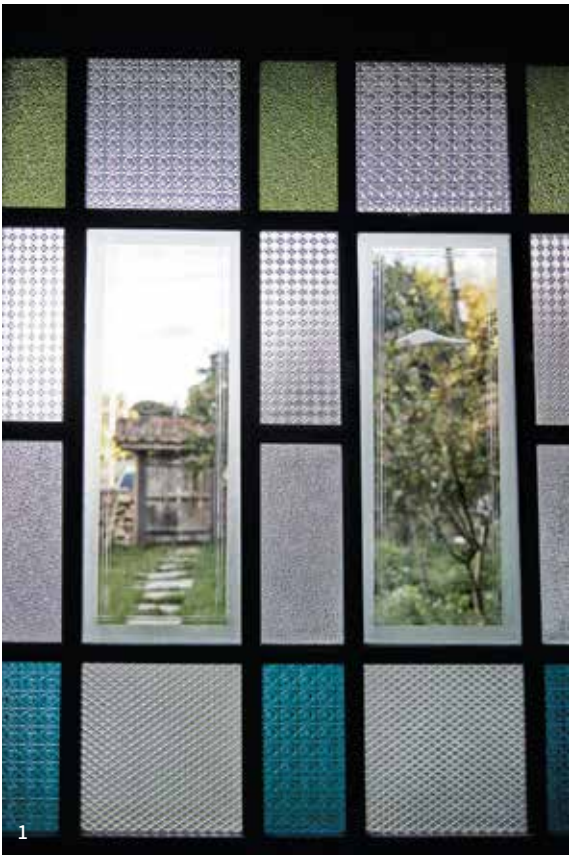
그 옛날 쉴 새 없이 직조기를 돌리며 강화 사람들을 먹여 살리던 공장은, 이제 어제의 역사를 오늘에 전하는 역할을 한다. 체험관이 문을 열면, 뉴욕에 사는 평화직물의 창업주 고 마진수의 아들 마영환 씨가 꼭 오겠노라 약속했다고 한다. 울타리 밖 옛 공장 터에, 강화 직물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을 나무 전봇대 두 개가 가만히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옛 평화방직 공장 터, 강화 직물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을 나무 전봇대가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



강화 읍내

근대 건축 무늬무늬



1



2



3



4

1. 황국현의 가옥 내부. 색유리로 만든 창은 당시 일본에서 공수한 것이다.
2. 3. 장 씨 집안 삼대 짝 머무른 고택. “강화도가 좋아, 이 집도 좋고. 다시 고향을 떠나기가 싫었어.”
4. ‘주인은 어디 있을까’ 굳게 닫힌 윤광한 가옥. 시간이 쌓인 고택 지붕 위로 노을빛이 쓸쓸하게 내린다.

옛 황국현 가옥

고택 보듬는
고마운 새 주인

강화읍에는 1900년대 초부터 지어진 근대 한옥이 곳곳에 있다. 어느 집은 높다란 담장 안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가고, 주인 잘 만나 쓸고 닦은 집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이 났다.

강화읍 남문안길을 걷다 고풍스런 고택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강화도 천석꾼으로 알려진 황국현의 가옥이다. 5년 전부터 도예가 최성숙 씨가 들어와 보듬고 어루만지며 살아가고 있다. “한옥에서 살고 싶어서 강화와 제주를 오가다 8년 만에 이 집을 발견했어요. 어찌나 견고하고 아름답던지 순간 났을 잃고 바라보았답니다.” 먼지로 뒤덮이고 넝쿨에 둘러싸인 고택이지만, 최 씨는 그 안에 섬세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다.

고택은 현재 TVN 드라마 ‘명불허전’을 촬영하고 있어 뷰 파인더에 담을 수 없었다. 집주인이 대신 안을 둘러보는 걸 허락했다. 1928년에 지은 이 집은, 천석꾼의 집답게 당시 할 수 있는 호사를 다 누렸다. 백두산에서 잣나무를 베어와 대들보와 서까래를 올리고, 창틀과 문틀, 마루, 문간을 하나하나 다 짜 맞췄다. 색유리로 만든 창으로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든다. 우리는 당시 일본에서 들여온 것으로, 집주인의 섬세하고 깊은 안목이 느껴진다. “배우 김남길 씨가 이 집의 기가 좋아서 드라마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대와 변화를 거스르며 옛 것을 지켜낸 고마운 새 주인. 그 덕에 고택은 백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건강한 숨결을 내뿜고 있었다.

장지영 가옥

달빛 아래
슬레이트 지붕을 인 한옥

먼지로 뒤덮이고
넝쿨에 둘러싸인 고택이지만,
새 주인은 그 안에 섬세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 비슷비슷한 집들 사이, 아직 남아 있는 빛을 따라 한 고택에 다다른다. 때마침 마당을 거닐던 주인 어르신께 인사를 건넨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실례지만 집 구경해도 될까요.” 맘씨 좋은 집 주인이 문을 활짝 열고 낯선 여행객을 반긴다.

넓은 마당을 감싸는 긴 담장, 고상하게 꾸민 화단. 고아한 멋이 흐르는 한옥.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양반집 규수가 눈앞에 아른거릴 것만 같다. 장지영(70) 선생은 13년 전 아내와 함께 낙향했다. 원래 한 2년 정도 살다 다시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아예 눌러앉아 버렸다. “강화도가 좋아, 이 집도 좋고. 다시 고향을 떠나기가 싫었어.” 1937년 당시 사법서사였던 장 선생의 할아버지 고 장두영 씨는 이곳에 터를 잡아 집을 지었다. 그 후로 장 씨 집안 대대로 머물렀다. 바람 솔솔 부는 대청마루에 앉았다. 집에는 소통하고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열린 공간으로 햇살과 바람이 자유로이 오가고 공간과 공간,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다. “집을 참 깨끗하게 잘 관리하셨어요.” “속만 깨끗하지 겉은 잘못됐어. 기와를 걷어낸 게 이 집으로선 가장 큰 실수야.” 그러고 보니 한옥에 얹힌 슬레이트 지붕이 낯설다. 기와가 낡아 비가 새니 어머니가 닦아내고 대야로 받치다, 결국 기와지붕을 걷어낸 것이다. “다른 건 옛 모습 그대로인데... 그땐 내가 몰랐어...” 어르신이 아쉬워하며 말끝을 흐린다. 기나긴 시간 속에서 옛 공간에 머물며 사람을 만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햇살이 사그라진 자리엔 가을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젊은

강화

오래된 가운데 새롭고, 여유로우면서 생동감 넘친다. 강화읍, 그 느리고 수수한 동네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풍물시장에선 도시에서 온 총각들이 밴댕이 피자를 굽고, 중앙시장 청년물 ‘개벽 2333’에는 강화 청년들의 꿈이 영어로 간다. 해가 지면 강화의 로데오거리 ‘별밤★거리’에 조명이 켜지고 한적한 시골 읍내에 반전의 하루가 시작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청 풍 상 회

강화 달구는,
스트롱강화 파이어화

강화풍물시장 식당가. 순댓국, 밴댕이 무침 등 시장 먹거리들 사이 피자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난다. 유명상(34), 조성현(31), 김도일(29), 신희승(29) 씨는 4년 전, ‘청풍(靑風) 상회’로 의기투합해 재래시장 한복판에 ‘화덕 식당’을 열었다. 이름 그대로 시장에 ‘젊은 바람’이 불었다. 사자발약쑥, 인삼, 밴댕이, 속노랑 고구마... 청년들은 강화 특산물로 요리를 한다. 밴댕이 무침이나 회는 먹어봤어도 밴댕이 피자는 처음이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 맛이 낫설면서도 신선하다. 고려산이 진분홍빛으로 물드는 사월이면 진달래꽃을 토핑으로 올린다. “아들들. 열심히 해라, 놀지 말고. 별 때 벌어야 잘 먹고 잘 살지.” 밴댕이 횃집 ‘옛날 집’의 안귀순(71) 할머니는 청년들에게 애정 어린 잔소리를 한다. 매일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시장통에서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기특하고 친자식 같아서다.



밴댕이 회무침과 밴댕이 피자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밴댕이 횃집의 ‘엄마’ 안귀순 씨와 화덕피자 굽는 ‘아들’ 신희승 씨.

깊어가는 ‘스트롱 파이어’의 밤.



신 씨는 그런 어르신을 스스럼없이 ‘엄마’라고 부른다. 상인들과 광버스 춤을 추며 어울린 다음 날엔 가게 매상이 확 오른다. 며칠 후에 강원도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텃세는 애당초 없었다. 시장 상인들은 피자는커녕 요리라고는 해본 적 없는 청년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다. 그 따스한 마음이 이어져 청년들도 사랑으로 화덕에 불을 지핀다. 어둠이 내리면, 피자 굽던 청년들은 펍(Pub) ‘스트롱 파이어’로 달려간다. 강화읍에서 ‘아삭아삭 순무 민박’을 운영하는 이들은, 작년 가을 게스트하우스 1층에 작은 술집을 열었다. 동네 주민과 여행객이 한데 어울리길 바라서다. “전에는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이루려 했는데, 지금은 호흡이 길어졌어요. 시간 가는 대로 즐겁게 살면서 동네 주민과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요.” 유마담으로 불리며 도심의 청년문화를 움직이던 문화기획자, 유명상 씨. 그 여유로운 얼굴을 보니, 4년 전 강화로 여행 온 그가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머무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아삭아삭 순무’에 머무르는 일본인 세키구치 씨는 강화도 여행이 처음이다. 전날 남쪽 해안도로를 둘러보고, 내일 강화 갯벌을 보고 싶다고 했다. (왼쪽) ‘아삭아삭 순무’ 게스트하우스. (오른쪽)



[청풍 상회 핫 스팟]

화덕 식당 강화읍 최초로 문을 연 화덕피자 전문점. 사자발약쑥을 넣은 도우로 빛은 밴댕이 피자과 속노랑 고구마 피자, 인삼 라테, 속노랑 고구마 라테 등 강화 특산물로 만든 메뉴가 신선하다. **아삭아삭 순무 민박** 청풍 상회 청년들이 처음 친구들과 놀기 위해 만든 공간. 6인실 기숙사 방이 일인당 2만 원, 2인실은 5만 원이다. 동네 건축가 아저씨가 ‘돈 안 들고 손봐준’ 인테리어가 제법 멋스럽다. **스트롱 파이어** 여행객들과 동네 주민을 위한 작은 술집. 간단한 수제 맥주와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문의 : ☎ 932-8779 / 010-9851-0229



인삼, 사자발약쑥 등 강화의 맛이 스민 타르트.
그 한 입의 총만함을 만드는 청년.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고 싶은데...”
사진가의 의도와 달리, 어머니는 ‘깎아 달라,
주름을 펴 달라’ ‘성형’을 요구한다.



청년몰
개벽 2333

‘어서 와~
청년몰은 처음이지?’

‘개벽 2333’, 이름도 거창하다. 기원전 2333년, 단군은 나라를 세우고 강화 마니산 참성단에서 하늘에 제를 올렸다. 그 기운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강화 청년들이 큰일을 냈다.

꽃 피는 사월, 중소기업청의 청년몰 조성 사업으로 강화 중앙시장 B동에 ‘개벽 2333’이 문을 열었다. 강화를 한가운데 있는 중앙시장은 만물상, 슈퍼, 미용실 등 110여 개 점포가 들어선 상가형 시장이다. 1980년대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곳은 대형마트에 밀리면서 점차 세상에서 멀어져 갔다. 그 안에 꿈을 품은 청년이 모여들면서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됐다.

‘어서 와~ 중앙시장 청년몰은 처음이지?’ 시장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면 개벽 2333의 문이 열린다. ‘인간을 널리 배부르게 하라’는 문구가 말하듯, 시장 안에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청년몰 운영위원장 이경화(31) 씨는 수제 타르트 전문점 ‘강화까까’를 운영한다. 인삼, 사자발약쑥, 속노랑 고구마 등 강화 특산물에 치즈가 녹아내린 타르트는, 과하게 달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맛이다. 강화를 대표할 만하다. “일본



가와고 고구마 마을에 갔는데, 지역 특산물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 팔더라고요. 나도 내 손으로 고향을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후 청년은 매일같이 강화에서 도심으로 가 밀가루와 씨름했다. 노력 끝에 파티시에가 된 무뽕뽕한 창고 출신 청년은, 지금 고향 땅에서 세상 가장 감미로운 타르트를 굽고 있다.

‘기억, 사진관’에서 만난 김재민 작가(26)는 순박하면서도 속 깊은 ‘강화다운’ 청년이었다. 사진을 찍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는, ‘2018년 강화 방문의 해’를 맞아 여행객들에게 강화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광성보, 초지진이 다가 아니에요. 강화 곳곳엔 숨은 명소가 많아요. 그곳에서의 행복한 한때를 사진으로 남겨 드리고 싶어요.” 읍에서도 한참 떨어진 시골에서 태어나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란 그는, 훗날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찍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런 훌륭한 청년이 있으니 강화의 내일은 밝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청년몰 핫 스팟]

기억, 사진관 강화의 숨은 명소에서 ‘인생 샷’을 약속한다. 야외 촬영비는 두 시간에 10만 원, 거리가 멀면 유튜브가 포함된다. 훈훈한 강화 청년 사진가와의 데이트는 덤이다.
문의 : ☎ 010-4454-2018

강화까까 칼로리 생각에 망설이던 식탐을 한껏 달아오르게 하는 ‘Made in 강화’ 타르트.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스타 상품에 인천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면세점 진출이 최종 목표. 4개 들이 한 세트가 1만 5천 원.
문의 : ☎ 010-3627-8597

분홍총각 분홍색을 좋아하는 낭만 총각이 현지에서 익힌 제대로 된 태국 음식을 선보인다. 퓨전이 아닌 전통식 뚝양꿍 라면이 단돈 4천900원.
문의 : ☎ 010-9743-1031

Lab.green 서울에서 온 소녀가 강화 아가씨가 되어 시장 한복판에서 꽃을 판다. 프리저브드 플라워와 드라이플라워가 만발한 공방에서 꽃 공예를 배울 수 있다.
문의 : ☎ 010-3024-7792



강화 읍내

핫 스팟 무벅무벅

강화
별밤★거리별밤★거리로 다시 태어난, 강화의 로데오 거리에서.
강화여고 학생들.강화 별밤★거리의 내일을 어깨에 짊어진,
든든한 상인회장 한창민 씨.문화의 별이 총총,
강화 로데오 거리

강화 젊은이들 사이에서 ‘강화의 로데오 거리’로 통하는 곳. 동문 안길 먹자골목에 음식문화 시범거리인 ‘강화 별밤★거리’가 조성됐다. 길을 따라 길게 이어진 식당가는 반짝이는 별 간판을 달고 새 단장을 했다.

SH 컴퍼니의 한창민(41) 대표는 이 골목의 상인 회장이다. 강화 토박이이자 이 일대에서 10년 넘게 장사 해온 그는, 별밤★거리의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했다. “고향 땅에 이태원 경리단길처럼 ‘핫’한 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마침 군에서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기에 힘닿는 데까지 돕고 있습니다.”

올봄, 그로인해 이 거리에 즐겨찾기 명소에 추가할 매력적인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 일대에서 보기 힘든 복합식 건물로 1층과 2층에는 닭 요리 전문점, 3층을

넘어서면 루프탑 바가 있다. ‘옥상 무지개’라는 예쁜 이름의 건물 꼭대기에 오르면, 소박한 읍내 풍경이 펼쳐진다. 상량한 가을바람 맞으며 크래프트 맥주 한잔 곁들이는 맛이란. 겨울밤이면 강화 속노랑 고구마를 구워 판다니, 한겨울 밤의 옥상카페가 궁금해진다.

빈티지한 식당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다. 아니나 다를까 옛 강화버스터미널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1960~70년대 버스를 타기 위해 주민들이 줄기차게 오가던 길이,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식당으로 다시 태어났다. 내부 인테리어도 버려진 건물에 쌓여 있던 물건을 주어다 쓸고 닦아 꾸민 것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감회에 젖고 젊은 친구들은 즐거워한다. 같은 공간에 스며든 다른 시간, 다른 세대의 사이좋은 공존이다.

변화는 시작됐다. 지난달에는 온 주민이 모여 달빛 아래 ‘별이 빛나는 밤에’ 축제를 즐겼다. 앞으로 사람들이 편히 오가도록 차 없는 도로로 꾸미고, 정을 사고파는 프리마켓을 열 계획이다. 단순한 먹거리 명소를 넘어, 새로운 문화가 샘솟는 강화 별밤★거리의 내일이다.



터미널에 버려진 물건을 주어다 쓸고 닦으니
근사한 복고풍 인테리어가 완성됐다.

옛 강화버스터미널 자리에 세운 송화 식당.
버스 승차권을 사던 매표소도 그대로다.
저 문을 열면 바로 터미널이었다.



[별밤★거리 핫 스팟]

옥상 무지개 & 플라잉펍 강화읍의 히든 스팟 루프탑 바. 가을밤의 정취 속에 크래프트 맥주와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가까이 있는 플라잉펍에는 더 다양한 크래프트 맥주가 구비돼 있다. 문의 : ☎ 933-3489

송화 식당 마늘 닭갈비와 튀김집, 주꾸미 집이 한 건물에 모여 있다. 닭 요리 전문점 ‘송화’ 브랜드를 걸고 맛을 보장한다. 7080 스타일의 복고풍 인테리어로 달동네 박물관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마늘 닭갈비 2만 원부터, 주꾸미 볶음밥 7천 원. 문의 : ☎ 934-4902

송화 삼계탕 삼계탕 프랜차이즈로 강화가 본점이다. 찹쌀밥을 눌러 만든 누룽지 삼계탕이 구수하고 담백하다. 문의 : ☎ 932-3489

강화 읍내
맛 집 두벅두벅

별 다섯 ★ ★ ★ ★ ★ 강화읍 미술랭

김밥
쫄면
국수



유명 셰프가 차린 음식점도,
예약해야 갈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찾아가 정겨움까지 채울 수 있는 식당.
어머니가 뜨거운 불 솥 옆에서,
오늘도 어제처럼 묵묵히 밥 짓고 음식을 만드는 곳.
평범하지만 정직한 맛으로 마음에 ‘별점 다섯 개’를 새기는,
강화 읍내 식당을 찾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천국’보다 할머니네 김밥

소풍 가는 날은, 김밥 먹는 날이었다. 부엌에서부터 퍼지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눈 뜨면 엄마가 부지런히 김밥을 말고 계셨다. 분홍 소시지가 든 뜨끈한 김밥이 어찌나 맛있던지, 자르기도 전에 덥석 베어 물어 혼쫓이 나곤 했다. 이제 김밥은 한집 걸러 가게가 있을 정도로 흔한 메뉴가 됐다. 하지만 ‘서문김밥’은 다르다.
오전 일곱 시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김밥을 사려는 사람이 길게 줄을 선다. SBS ‘생활의 달인’과 JTBC ‘밤도깨비’에서 맛집으로 소개한 후로 줄이 더 길어졌다. “TV에 나오고 유명해진 거예요?” “아니, 강화 사람들이 인정해서 이렇게 된 거지.

손님들이 한두 시간 기다려도 아깝지 않다고 해. 그런 말을 들으면 미안하면서도 기분이 좋아.” 어성출(72) 할머니는 40여 년간 한결같이 김밥을 팔았다. 처음 15년은 김밥을 짬어지고 터미널과 장터 곳곳을 다녔다. 힘들 때나 유명해진 지금이나 메뉴는 단 하나, 맛도 변하지 않았다. 실하게 채운 계란지단과 오이 혹은 시금치, 단무지, 햄. 할머니는 평범한 재료들로 특별한 맛을 낸다. “김밥 재료가 다 똑같지 뭐. 그래도 난 좋은 것만 써. 우리 가족 먹여 살려 준 강화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따듯한 마음을 짝 채운 김밥 한 줄에, 가슴속까지 든든하다.

밥 사이사이 당근이 스민 할머니표 서문김밥



★ ★ ★ ★ ★

별점 비결 : 밥 사이사이 스민 당근이 이채롭다. 당근을 기름에 살짝 볶아 뜬 들일 때 넣어 구수한 당근 밥을 만든다. 또 ‘강화 섬쌀’을 비롯한 강화에서 난 건강한 식재료를 쓰고, 볶은 소금과 기름으로만 간을 해 맛이 깔끔하다.
메뉴 : 서문김밥 단 하나 2천500원
위치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30번길 2-1
문의 : ☎ 933-2931



전혀 새로운 쫄면

인천은 쫄면의 고향이다. 1970년대 초 ‘광신제면’에서 굵게 잘못 뽑은 냉면 면발은, 이웃한 분식집 ‘맛나당’으로 건너가 ‘국민분식’이 됐다. 원조를 뛰어넘는 맛이 강화읍에 있다.

하마터면 스쳐 지날 뻔했다. ‘정통분식’은 제대로 된 간판 하나 없는 작고 허름한 분식집이다. 그 안에서 임순희(78) 할머니와 딸 이현정(51) 씨가 30여 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TV에 ‘생활의 달인’으로 소개될 만큼 유명해졌지만, 모녀는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해오던 대로 음식을 만든다.

이 집 쫄면은 꽤 신선하다. “원래 쫄면을 못 먹는데. 여기 음식은 맵지 않고 맛있어요.” ‘쫄면 먹으러 서울에서 일부러 왔다’고 웃으며 말하는 손님들이, 그 말이 진담인 듯 그릇을 짹짹 비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알던 쫄면과 완전히 다르다. 보통 쫄면 소스가 단맛 매운맛 신맛 삼박자에 장단을 맞춘다면, 이집 쫄면은 먹는 순간 청량감이 터진다. 그 비결은 손수 만든 소스. 오이를 기본으로 오렌지, 파인애플 등 뜻밖의 맛이 연이어 올라온다.

“힘들어도 한번 소스를 만들 때, 오이를 200개씩 갈아 넣어요. 고추장도 최고 좋은 것을 쓰고, 우리 엄마의 고집이죠.” 어머니와 함께 주방에 있던 아주머니는 가까이에 ‘정통 만두’라는 분식집을 냈다. 그 집도 만두와 도넛으로 강화에서 이름 꽤나 날리고 있다. ‘정통’이라는 이름을 건 어머니의 손맛이, 또 다른 맛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원조를 뛰어넘는 쫄면을 만드는, ‘정통분식’ 사장님



전통 짜장면

★★★★★

별점 비결 : 평소 쫄면을 좋아하던 할머니가 어느 쫄면도 성에 차지 않아 손수 요리법을 개발했다. 고춧가루 대신 고추장을 넣고, 오이를 기본으로 숙성된 마늘, 양파, 파인애플, 오렌지 등을 넣어 청량감을 불어넣었다. 그 옛날 ‘국민학교’ 앞에서 먹던 떡볶이와 오므라이스도 강화 젊은이들 사이에 입소문이 자자하다.
메뉴 : 쫄면 5천 원, 오므라이스 5천 원
위치 :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21번길 11
문의 : ☎ 934-8309

강화국수

소설가 성석제가
사랑한 국수



“버스에서 내리자 국수 삶을 때 나는 구수한 냄새가 느껴졌다. 간판이 없어서 국숫집인지도 몰라볼 뻔했다. 그 집의 메뉴는 단 두 가지, 비빔국수와 물국수. 허겁지겁 국수를 먹고 나서 빈 그릇을 바라보니 또 한 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말없이 계단을 걸어올라 국사책에 나오는 전등사가 가는 버스를 탔다.” 소설가 성석제가 사랑한 국숫집 ‘강화국수’. 197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국숫집에 간 후로 그는 해마다 강화도행 시외버스를 타고 국숫집을 찾았다고 한다. 이 집은 1950년대 옛 여객터미널 근처에서 ‘수정국수’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시작했다. 간간하기로 유명한 황광해 음식평론가가 “성석제 덕분에 간판도 없는 국숫집에서 ‘수정 같은 국수’를 먹었다”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배우 고두심과 고현정도 즐겨 찾는다.

최선희(82) 할머니는 처음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국수를 만들어 팔았다. 뜨끈한 육수에 면을 말아 낸 단출한 한 그릇.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맛이 좋다. 세월은 흘러 터미널 모퉁이에 있던 가게는 자리를 옮기고, 할머니의 얼굴이 새겨진 번듯한 간판도 달았다. 한 그릇에 10원 하던 몸값도 4천500원이 되었지만, 이마저도 싸다.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는 손을 놓고, 아들 이상돈(56) 씨와 며느리 차운실(47) 씨가 대신 국수를 삶는다. 훗날 조리학관에 다니는 아들이 삼대 째 손맛을 이어갈 생각이다. ‘국수 미치광이’ 성석제가 버스 터미널이 철거된 후에도 살아남은 국숫집에 안도하며 말했듯, 고맙고도 고마운 일이다.

★★★★★

별점 비결 : 국수를 정성껏 삶아야 한다는 게 할머니의 철칙. 재료에도 마음 씀씀이가 담겨 있다. 대부분 강화에서 나는 국내산을 쓰고 고춧가루는 직접 농사지어 쓴다. 대표 메뉴는 예나 지금이나 비빔국수와 잔치국수 두 가지. 계절메뉴로 열무국수, 콩국수, 냉국수를 선보인다.
메뉴 : 비빔국수·잔치국수가 보통은 4천500원, 곱빼기는 5천 원, 특대는 6천 원
위치 :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7
문의 : ☎ 933-7337



국숫집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강화국수’ 사장님



江華

강화, 잠들었던
고려를 깨우다

高麗

강도 도성 발굴 전경(강화읍 옥림리)



강화는 전쟁을 피해 잠시 머물렀던 피난처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고려 수도였다. 하지만, 오늘 날 도움지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내년은 고려 건국 1100년을 맞는 해이자, 강화 방문의 해다. 우리 시는 인천이 품은 고려 역사의 위상을 높이고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내년부터 ‘강도(江都·강화가 고려시대 수도였을 때 이름)의 꿈’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자료 및 도움 이희인 시립박물관 연구관



강도가 자리 잡았던 오늘날 강화읍

강화는 고려의
도움지였다

13세기 몽골과의 전쟁 동안 39년간 고려의 도움이었던 강화, 강도(江都). 강화는 전쟁을 피해 잠시 머물렀던 피난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모델로 건설된 고려의 정식 도움지였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강화를 ‘황제의 도움’으로 인식했지만 지금까지 강화를 한 나라의 도움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천도하면서 1232년(고종 19년)부터 1270년(원종 11년)까지 강화는 고려 도움으로서 황도의 역할을 수행했다. 천도는 급하게 이루어졌지만, 강도(江都)는 무계획적으로 건설되지 않았다. 천도 이후 강도는 “비록 천도한 초창기이나 구경(毬庭)·궁전(宮殿)·사사(寺社)의 이름이 모두 송도(松都:개경)에 따랐고 팔관(八關)·연등

(燃燈)·행향(行香)·도장(道場)이 모두 옛 방식 그대로였다.”라는 「高麗史」의 기록처럼,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모방해 만들어졌다. 즉 강화는 또 하나의 개경이 자리 잡았던 곳으로, 한 나라의 도움이 자리했던 고도(古都)인 것이다.

거대한 도성과
왕릉이 존재하는 강도(江都)

강화가 고도(古都)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흔적이 왕궁과 왕릉이지만, 강화엔 고려궁이 소실돼 그 터만 남은 상태다. 대신 강도(江都) 시기에 조성된 왕릉이 강화가 고려의 수도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강화는 남한에서 고양시 공양왕릉을 제외하고 개성 주변에서만 볼 수 있는 고려 왕릉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강화 읍내

강도(江都)의 꿈 프로젝트

강화에는 고종의 홍릉, 희종의 석릉을 비롯한 4기의 왕릉과 문헌 이를 알 수 없지만 왕릉급이 분명한 석실분도 몇 기 있다. 발굴을 통해서 강도 왕릉의 구조는 개경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질 좋은 자기와 구슬, 금동제 봉황문 장식 등 수준 높은 유물이 출토되어 강도의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강도가 자리했던 강화읍 일대를 에워싼 성곽, 즉 도성이 남아 있어 강도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준다. 도성은 판축으로 쌓은 토루 위에 다시 흙으로 그 위를 덮는 토성(土城)으로, 강화읍 동쪽 구간을 제외한 길이가 약 11km다. 성벽이 확인되지 않은 동쪽 해안 구간까지 포함하면 강도 도성의 길이는 약 16~17km가 된다. 이는 둘레 약 18km인 조선시대 한양도성과 비슷한 규모다. 강도가 전쟁 시에, 그것도 섬에 건설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도성의 규모는 강도를 임시 피난처로만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 1. 강화 북문
- 2. 희종 석릉
- 3. 고려궁지 발굴 현장



- 인천의 고려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다

이처럼 한 나라의 도움이 자리했던 강화이지만, 현재 고려 개경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강화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려 왕도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인천만이 지닌 귀중한 역사·문화 자산이다. 이에 우리시는 강화도를 서울, 경주, 부여, 공주와 같이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적 역사 자산이 숨 쉬는 고도(古都)로 만들어 정체성을 되찾는 ‘강도의 꿈’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강도의 꿈’ 프로젝트는 고려 궁궐 재건 활용, 고려 기록 유산 활용, 강화 역사 건조물 활용, 강화 역사 유적 가치 창조,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사업 등 5개 분야, 2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강도(江都)의 꿈 프로젝트

1
고려 궁궐 재건 활용

• 먼저, 시는 궁궐 재건을 위해 고려 강화도성 시기 궁궐 미니어처 제작 및 전시관을 내년에 개관할 계획이다. 또 고려궁지 정궁 발굴 및 재건 사업을 2017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한다. 고려 궁궐 및 성곽에 대한 발굴·재건을 통해 고려사가 갖는 역사성을 회복하고 역사 문화유산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해 정궁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단지 조성의 단초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경주 보문단지처럼 고려 역사 문화단지를 오는 2045년까지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이다.

2
고려 기록 유산 활용

• 고려 강도(江都) 시기는 팔만 대장경과 상정고금예문이 제작되었던 시기다. 시는 찬란했던 고려 강도(江都)의 기록 유산을 보전하여 한국 기록 문화의 본산으로서 인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또 조선왕조실록 정족산 사고본, 외규장각 도서, 박두성 훈맹정음도 강화에서 탄생했다. 이처럼 각처에 흩어져 있는 기록 유산을 강화에 보관하기 위한 자료관을 건립·운영해 강화 기록 문화의 위대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3
강화 역사 건조물 활용

• 시는 오는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프로그램 중심의 세계 최초 신개념 ‘지붕 없는 국립강화박물관’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또 조양방직 공장, 교동교회, 남관제요 등 7곳의 근대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근대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통한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를 복원해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을 기념한다.

4
강화 역사 유적 가치 창조

• 시는 중요 유산에 대한 세계 유산 등재 및 건조물의 국보 지정을 추진한다. 지난 2000년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지석묘 등 총 70기가 세계 유산에 등재됐다. 시는 강화산성, 강화외성, 삼랑성, 강화돈대 26개에 대한 ‘해양관방 유적’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려 왕릉 4기(홍릉, 석릉, 가릉, 곤릉)도 세계 유산으로 등재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화 정수사 법당(보물 161호)과 강화 전등사 대웅전(보물 178호)의 ‘국보’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5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사업

• 시는 강화 고려궁지 범위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고려궁지 범위에 대한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해 고려 개국 1100주년인 내년에 3D그라픽을 제작하고, ‘또 하나의 황도(皇都), 강화’라는 책을 출판할 계획이다. 또 남북이 고려시대를 공유하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강화·개성 유물 교류전, 강화·개성 고려왕릉 사진전, 남북 학생 강화·개성 역사 탐방 교차 수학여행, 남북 역사학자 국제 학술회의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쇼미더머니 시즌6’ 우승 ‘행주’

대한민국 최고 RESPECT 인천 힙합 ‘리스펙트’!



교실 뒤에서 웃고 떠들며 힙합을 듣고, 흥얼거렸다. ‘재들 또 저러고 노는구나...’
반 친구들은 별 관심도 없었다. 그렇게 음악이 좋아 뭉쳐 다녔던 삼총사가 이번에 제대로 일을 냈다.
인천 토박이 3인조로 구성된 힙합그룹 ‘리듬파워’의 래퍼 ‘행주’, 그가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Mnet
‘쇼미더머니 시즌6’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승 곡 가사 속엔 인천의 이야기가 가득 녹아 있었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왼쪽부터 ‘리듬파워’의 행주, 지구인, 보이비

쇼미더머니 우승자 행주, ‘인천’을 노래하다

‘아르바이트했던 부평 / 주말이면 갔던 구월동 / 돌아봤더니 내
초심은 역시 출신을 외쳐 ITOWN / 날아볼게 인천 이코노미 국
제선 타고 위로...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 왼쪽 돌리고
오른쪽 돌리고 / OKAY NOW 둥글게 디스코 팡팡...’
6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펼쳐진 래퍼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시즌6’ 파이널 무대에서 인천을 노래한 곡이 신명나게 울려 퍼
졌다. 내로라하는 국내 래퍼들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
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던 이번 시즌에서 ‘리듬파워’의 ‘행주’는
결승 곡으로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담은 ‘돌리고’를 선보였다.
행주는 애초에 ‘쇼미더머니 시즌6’에 참가할 마음이 없었다. 소
속 그룹 ‘리듬파워’ 멤버 지구인이 예선에서 탈락하자 충격을 받
아 현장에서 급히 지원했다. 유독 치열했던 이번 ‘쇼미더머니 시
즌6’는 마지막까지 우승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매회 수준 높
은 무대가 이어졌다. 행주는 왼쪽 눈이 실명 위기인데도 결승전에
올라 결국 우승까지 거머쥐는 반전 드라마를 써 화제를 모았다.
“인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천을 노래하게 된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는 사실 ‘리듬파워’를 알리고 싶어서 나
간 거예요. 이번엔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출연하는 바람에 믿는
구석이 없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마음을 비우고 매순간 최선을
다했더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따라왔어요.”

늘 함께 했던 세 친구가 만든 힙합 그룹 ‘리듬파워’

인하부고 2학년 시절, 셋은 항상 몰려다녔다. 한 명은 전교 1등
을 하는 수재였고, 한 명은 멋있어 보이고 싶었던 운동 잘하는
학생이었다. 나머지 한 명은 조용히 교실 한 쪽에서 이어폰을 끼
고 음악을 즐겨 듣던 평범한 학생. 그런 그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로 쉬는 시간이면 교실 뒤에 모이기 시작했다. 랩 하고, 가
사 쓰고, 노래를 부르는 게 마냥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각자 대
학 진학 후 만난 인하대 후문 지하 술집에서 음악에 대한 꿈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해볼까?”라는 마음이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꿈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인천 토박
이 래퍼들은 ‘방사능’이란 이름으로 언더그라운드에서 입지를

화제의 인물

‘쇼미더머니 시즌6’ 우승 ‘행주’



‘쇼미더머니 시즌6’ 결승전에서 우승한 ‘리듬파워’의 래퍼 ‘행주’ (Mnet 제공)



넓히기 시작했다. 그 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자 방사능에서 ‘리듬파워’로 그룹 이름을 변경했다. 개성 있는 래핑과 독특한 스타일로 자신들의 유쾌함을 전파, 힙합씬의 유일무이한 캐릭터로 자리 잡은 세 친구. ‘리듬파워’는 현재 다이내믹 듀오, 프라이머리가 소속된 힙합 크루 ‘아메바컬처’에 등지를 튼 실력과 힙합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부분 음악을 하면서 친해진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음악을 하기 전부터 친한 친구였어요. 리듬파워에 대한 의미 부여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구요, 저희한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 이상의 끈끈함과 특별함이 있어요. 10년 이상 일

도 같이 하다 보니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사이가 됐죠.”

인천을 노래하는 건, 밥 먹듯 자연스러운 일상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힙합이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장르처럼 여겨지는 생소한 분야였죠. 근데, 그런 힙합의 독특함에 끌렸어요. 솔직하고 재미있는 랩 가사가 매력적이었고요. 힙합은 가사를 많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의식의 흐름대로 풀어나가는

재미랄까...”

리듬파워의 솔직한 감성이 담긴 노래에는 유독이 ‘인천’이 자주 등장한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만큼 추억도 많은 리듬파워에게 그들이 자란 ‘인천’은 삶의 터전이자 공유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많은 곳이다. 철 없던 시절 장난치며 놀던 곳부터, 함께 모여 음악을 시작했던 곳까지.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그들만의 감성으로 음악을 하는 만큼 리듬파워에게 ‘인천’은 특별하다.

“인천은 화려하진 않아요. 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단이 있고 바다도 부산과 비교했을 때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인천의 멋이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꾸미지 않는 사람 사

는 냄새가 나는, 그래서 날것 그대로일 때 멋이 나는 도시가 인천인 것 같아요. 지금도 걷고 싶을 땐 동인천, 월미도를 찾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동인천, 신포동이 변화가였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가에서는 비껴났지만, 서울의 종로처럼 인천 중구에는 도시를 지키는 힘이 있어요.”

세 가지 개성으로 뭉친 세 친구의 신나는 무대

현재 행주는 솔로가 아닌 리듬파워 신곡을 위해 열심히 작업 중이다. “쇼미”를 통해 저희 멤버 각각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이런 게 통할 수 있구나’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리듬파워로 앨범을 내도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3인조 랩 트리오로서 유일무이한 팀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앞서 지구인은 ‘쇼미더머니 시즌4’에서 독특한 음색으로 인기를 끌었고, 보이비 역시 지난해 ‘시즌5’에서 ‘호랑나비’를 히트시키며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의 꿈이요? 꿈은 매번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더에서 처음 공연하던 시절에는 그 옆에 있는 500석 공연장에서 랩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몇 천 석 규모의 공연장에 오르는 거였고, 그렇게 조금씩 꿈을 이뤄나갔어요. 일단 올해는 연말 음악 시상식에 올라 수상하는 것이 꿈이구요, 인천에서 무료 공연을 하겠다는 우승 공약도 언젠가는 이뤄야죠.”

꿈을 계속 키우고 또 이뤄나가는 과정이 재밌고 황홀하다는 리듬파워. ‘쇼미’를 통해 개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기에 셋이 뭉쳤을 때는 더욱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리듬파워는 일단 무대 위에서 신나고, 누구

보다도 에너지 넘치는 캐릭터가 강한 팀이에요. 앞으로도 그 이미지는 바뀌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신날 겁니다. 앞으로도 인천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2014년 발매된 리듬파워의 앨범 ‘월미도의 개들’

그들이 자란 ‘인천’은 삶의 터전이자 공유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많은 곳이다. 철 없던 시절 장난치며 놀던 곳부터, 함께 모여 음악을 시작했던 곳까지.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그들만의 감성으로 음악을 하는 만큼 리듬파워에게 ‘인천’은 특별하다.



리듬파워
from 인천

본명은 윤형준.
어릴 적부터 사촌형이 ‘행주’라고 불러 자연스럽게 행주가 됐다.



랩을 시작할 때부터 영어 이름이 갖고 싶었다. 본명 김성경(바이블)에서 유래된 별명.



원래 별명은 외계인. 거의 모든 사람이 MP3를 사용하던 시절, 혼자만 오래된 CD플레이어를 사용하다 어느 날 최신형 MP3를 목에 걸고 나타났다더니, 친구들이 드디어 ‘지구인’이 됐다고 붙여준 별명. 본명은 이상운.

CULTURE
CALENDAR

10月

12.

경인방송 시민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830-0652

13.

2017 부평밴드페스티벌
부평뮤직컨퍼런스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오후 2시
무료
☎ 500-2000



2017 인천사랑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440-2492

스테이지149 연극선집2
‘오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8시
전석 2만 원
☎ 1588-2341

14

2017 부평밴드페스티벌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오후 6시
무료
☎ 500-2000

스테이지149 연극선집2
‘오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 원
☎ 1588-2341

창작오페라 ‘선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학생 무료, 일반 6천 원
☎ 760-3532

로맨틱 발레 ‘지젤’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대공연장)
오후 3시
R석 2만 원,
S석 1만 5천 원
☎ 460-0560



15.

2017 인천음악제-3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873-7772

17.

아동극 ‘괴물 신드롬’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9시 50분, 11시
전석 2만 원
☎ 580-1135



18.

아동극 ‘괴물 신드롬’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9시 50분, 11시
전석 2만 원
☎ 580-1135

2017 커피콘서트VIII
양상을 술리 판 투티
‘스페인의 향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 5천 원
☎ 1588-2341

19.

인천피아노협회 제15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010-3266-5115

20.

국악으로 듣는 가을 밤의 힐링
‘#창작국악_더미소’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 원
☎ 505-5995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젤리클석 15만 원, VIP석 15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 1566-6551

인천청소년교향악단
제24회 청소년 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38-6040

21.

부평아트센터 클래식
‘피아노 배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R석 6만 원,
S석 5만 원,
A석 4만 원
☎ 500-2000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
젤리클석 15만 원, VIP석 15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 1566-6551

EQUM 제11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일반 1만 5천 원, 초·중·고 7천 원
☎ 765-6955

사랑은 비를 타고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학생 무료, 일반 6천 원
☎ 760-3532

22.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
젤리클석 15만 원, VIP석 15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 1566-6551

24.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67회 정기연주회
‘클래식 가을에 빠지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

노래하는 인문학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230-1420

25.

10월 감성 데이트 콘서트
가을, 그리고 연극
‘Face to Face’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580-1166

예일종합예술원 교수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433-0733

부미의 재즈 오딧세이 ‘탱고’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3만 원
☎ 010-8654-9839

[마티케콘서트] 마실
아울로스플루트오케스트라의
‘Flute & Flutist’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천 원
☎ 460-0560



26.

브런치 콘서트 스페셜
‘두 번째 달’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1만 5천 원
☎ 500-2000

인천시립합창단
제157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

27.

에헤라디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500-2000



‘선을 흐르는 그림’
로맨티카 아르떼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 원
☎ 505-5995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510-9000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제3회 I-사랑 태교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1588-2341, 438-7772

28.

제28회 이견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760-0562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1만 원
☎ 833-2080

29.

제8회 인천 뮤직플라이
플루토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010-6204-6431

인천신포니에타
THE STRINGS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일반 1만 5천 원, 청소년 1만 원
☎ 819-050

31.

제23회 남구역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880-4296

이달의 展

부평영아티스트 2기 POP Prize
9월 21일~10월 8일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2017 글로벌 서각 오케스트라전
10월 3일~9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미술부 회원전
10월 3일~9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한금화 개인전
10월 3일~9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하와이 교포 미술교류전
10월 10일~16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고 황병식 유고전
10월 10일~16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제20회 수요사생회전
10월 10일~16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그림자 전
10월 10일~16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2017 韓日 수채화 아카데미 - 수연회전
10월 11일~22일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포커스 2010, inner shot6
9월 19일~25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초고(草叢)연구회, 위음展
10월 11일~30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Perennial Inspiration
부평영아티스트 3기 선정작가전
10월 12일~29일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미술문화관광 융합을 위한 인천세계미술제
10월 17일~23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다름이란 어울림 전
강우석(조각) 김기중(캘리그래피) 한윤기(한국화)
10월 17일~23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 10주년 기념
박물관 축제
10월 18일~30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유은 이향녕 서각전
10월 21일~30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인천문화사상수상자 인천시 초대
‘심은 전정우’ 서예전
10월 24일~30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권오규 개인전
10월 24일~30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53회 인천광역시전국공모미술대전
10월 31일~11월 12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전시실

대관 안내

부평아트센터
기타시설 대관 공고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부평아트센터
장소	(B1) 오픈스페이스, 연습실 1,2,3,4 (1F) 다목적홀, 영상편집실, 프로그래밍실 1,2, 모임방 1,2,3,4	해누리극장(대공연장), 달누리극장 (소공연장), 갤러리꽃누리(전시장)
기간	10월 2일~12월 30일	7월 3일부터 상시
방법	예약신청-예약승인-입실확인-공간이용- 퇴실점검 *홈페이지(bpcf.or.kr) 참조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문의	☎ 500-2064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500-2055 (부평구문화재단 공연사업팀)

‘해양의 도시, 인천’전 그 뒷이야기

박물관 특별 전시는 늦어도 1년 전에 주제가 확정된다. 하지만 지난 9월 12일 개막해 10월 29일까지 진행되는 ‘해양의 도시, 인천’전은 다른 전시에 비해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애초에 기획했던 전시가 부득이한 이유로 무산된 탓에 주제를 다시 선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글 배성수 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부장 사진 인천시립박물관

D-71
7월 3일

이번 전시의 주제를 ‘해양’으로 확정지었다. 박물관에 주어진 시간은 71일 남짓이었다. 부족한 시간만큼 기획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해양’이라는 막연하고 광범위한 주제 속에 개항 이후 인천에 설치된 해양 관련 시설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큰 틀을 잡고 준비에 들어갔다. 전시 준비의 첫걸음은 전시의 구성이다. ‘세계와의 조우’ ‘바다를 향한 외침’ ‘바다의 정원’으로 세부 주제를 나눈 뒤, 그 안에서 각 시설 또는 제도별로 다시 내용을 구분했다.

D-26
8월 17일



국립등대박물관에서 대여 유물을 포장하는 광경

주제와 구성이 확정된 후 전시에 출품할 유물을 선별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1차적으로 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선별하지만, 경우에 따라 외부 기관의 유물을 대여해야 한다. 해양 관련 소장품은 박물관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물관에 없는 등대 관련 자료를 비롯해 몇몇 유물은 국립등대박물관 등의 협조를 구해야 했다. 유물 대여 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까닭에 서울, 경기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을 두 번에 나누어 다녀와야 했다. 유물 운송을 마무리 한 후 도록과 리플릿에 쓰일 사

진 촬영과 문구 작성을 시작했다. 그 즈음 전시 시설 공사를 위한 전체적인 전시장의 디자인과 콘셉트도 확정했다.

D-15
8월 27일



전시 시설 공사 모습

전시 시설 공사는 머릿속에 있는 전시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해양’을 주제로 한 만큼 전시의 기본 색상을 ‘블루’로 정했다. 이번 전시는 향후 다른 기관에서의 전시를 염두하고 기획했기 때문에 이동 가능한 시설로 전시장을 꾸미기로 했다. 셋으로 구분된 대주제 안에 소주제들이 나열되는 식이어서 동선을 구분하는 가벽을 최소화해 관람자가 자유롭게 각 주제를 선택하며 볼 수 있도록 했다. 열흘 넘게 진행된 시설 공사는 도색과 패널 작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적어도 개막 2~3일 전에는 전시품의 진열까지 끝내고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한번 설치된 시설은 폐막 때까지 수정이 불가능하기에 현실에서는 보통 유물을 진열하기 전까지 시설 공사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의 경우는 준비 기간이 짧았던 탓에 개막 전날 오전에 시설 공사를 마쳤다.

D-1
9월 11일

지금까지의 과정이 기획자를 비롯해 한두 명의 인력으로 준비해 왔다면, 진열 작업에는 거의 모든 인원이 투입된다. 진열은 보통 2~3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대개 연차가 있는 직원이 진열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이를 보조



전시 진열 작업 중인 박물관 직원들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전시 작업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그래도 이번 진열 작업은 비교적 일찍 끝난 편이다. 경우에 따라서 개막 직전까지 진열이 계속될 때도 있다.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친 전시장은 관람객 맞을 준비를 끝냈다.

D-day
9월 12일 오전 10시

전시가 개막했다. 외부 초청 인사 없이 박물관 직원들만 모여 조출한 개막 행사를 가졌다. 70일간의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다. 다른 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준비 기간이었다. 그럼에도 전시장의 모습이 어느 전시와 다름없이 세련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기획자의 노력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개막식이 끝나고 전시를 관람 중인 시민들

해양의 도시, 인천

일시 : 9월 12일(화)~10월 29일(일)
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 ☎ 440-6750

※ 이 전시는 그동안 바다를 잊고 살았던 인천 시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숙원사업인 ‘해사법원’과 ‘국립해양박물관’을 유치하여 해양 주권을 되찾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기획했다.

NEWS BRIEF



KTX·GTX 인천에 달린다



우리 시의 철도망 확충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인천에서도 KTX 탑승이 가능해지고, GTX로 인해 서울까지의 통근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우선 인천발 KTX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운행일정을 확정했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해 부산·광주 등을 목적지로 하루 24회 왕복 운행한다. 12회는 20량 1편성으로, 나머지는 10량 1편성으로 운행한다. 인천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42분, 광주까지는 1시간 47분 소요 예정이며,

목표 개통 시기는 2021년이다. 송도와 서울역을 30분 내 생활권으로 묶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사업 실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GTX B노선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건설되며,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문의 : 시 개발계획과 ☎ 440-4666

해양친수도시 꿈꾼다

우리 시는 항만과 군부대 철책 등에 가로막혀 시민들이 직접 바다를 접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35년까지 해양 개발계획 청사진을 담은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이번 구상의 미래 비전은 ‘시민에게 열린 바다,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로 결정됐다. 시는 우선 해양친수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인항·내항·송도·소래·영종도·강화도 등 6곳을 친수 거점으로, 24곳을 친수공간 활용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중 7곳은 선도사업 대상 지역으로 정해 2020년까지 친수공간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도시계획과 ☎ 440-4423

송도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준공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가 지난달 21일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 복합문화센터 안에 문을 열었다. 스타트업 캠퍼스에는 신생 벤처기업인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창업공간이 조성됐다. 캠퍼스에는 공모를 거쳐 엄선된 55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했으며, 입주기업은 시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대학인 뉴욕주립대·조지메이슨대·켄트대·유타대 등 4개 외국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문의 : 시 신성장산업과 ☎ 440-3274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일반화 사업 2024년 완공

우리 시는 지난 9월 5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기본구성을 발표하고,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10.5km 구간을 2024년까지 일반도로로 바꾸는 사업을 전체 구간에서 동시 착공한다고 밝혔다. 일반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의 기능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경된다. 시는 차로수를 줄여 남는 공간에 공원·녹지와 다양한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고 국내·외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소통·문화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시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 440-4192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50만 원

우리 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복지를 확대한다. 시는 먼저 출산 정책에 지급하는 축하금을 현행 15만 원에서 내년부터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 어린이집의 영유아 6만4천 명에게 1인당 월 평균 3만8천 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도 101곳을 추가 지정하고, 취약 계층 어린이 6천5백 명에게는 어린이 안심폰도 무상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 시 정책기획관실 ☎ 440-2132

세계가 인천서 지구온난화 막는다



우리 시가 내년 열리는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제48차 IPCC 총회는 195개국의 정부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특히 내년은 IPCC 설립 30주년으로 유엔(UN) 기후변화협약이 IPCC에 공식 요청한 ‘지구온난화 1.5도(SR15) 특별보고서’를 다루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시는 이 보고서가 지구온난화 1.5도 목표의 달성 경로를 처음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파리협정의 후속 협상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정이다. 문의 : 시 녹색기후과 ☎ 440-8592

택시타고 인천시 홍보한다

인천시 택시 홍보단이 지난 9월 6일 인천교통연수원에서 발대식을 열고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인천 택시기사 100명으로 구성된 택시 홍보단은 인천 도시 브랜드인 ‘올 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이고 인천의 역사·문화·관광 명소를 승객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조합과 함께 인천 택시 1만 4천 대가 홍보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문의 : 시 택시화물과 ☎ 440-3824



취약계층 아동 기형·사시 시술 지원 확대

우리 시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기형·사시 등 의료 지원대상을 8천여 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사업 대상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인하대병원과 길병원, 한림병원, 인천시

관광용 공기부양정 뜬다



국내 최초로 관광용 공기부양정이 인천 앞바다를 누빈다. 우리 시는 인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용 공기 부양정 5대를 도입, 내년 여름 휴가철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시가 도입하는 공기 부양정은 해상 유람용으로 6인승 2대, 10인승 3대다. 공기 부양정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 앞바다에서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어 관광객의 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2

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기존 대상 아동(1천447명)에 한부모가정 아동 6천379명을 추가해 총 7천826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2개 병원과 치과의사회가 포함됨에 따라 의료지원 병원이 권역별로 확대돼 아동의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문의 : 시 아동청소년과 ☎ 440-2882

美 오티스, 송도에 글로벌 R&D 센터·
첨단생산시설 구축



세계 최대의 엘리베이터 제조·유지 보수 전문기업인 오티스가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 R&D센터 및 첨단생산시설을 건립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월 25일 G타워에서 오티스와 투자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오티스가 건립하는 R&D센터 및 첨단 생산시설은 총 면적 1만5천600㎡의 규모로 R&D센터, 첨단 생산시설 및 부품공급센터, 현대화 시스템센터, 품질센터, 기술교육 및 고객 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374

영흥·선재도 배수지 준공…
급수 안정화

영흥·선재도에 배수지가 건설되어 오는 11월부터는 주민들이 안정적인 급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4년 3월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총 42억 원을 들여 시설용량 2천300㎥ 영흥배수지와 440㎥ 선재배수지를 준공했다. 이에 따라 단수 시에도 23.7시간의 공급능력이 확보돼 물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도 안정적으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한편 그동안 영흥·선재도는 영흥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광역 상수도 용수 중 일부를 주민에게 생활용수로 직접 급수에 왔다.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 720-2153

서해5도 백령병원에 내과전문의 배치

우리 시는 의료 취약 지역인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지역 주민 의료 지원을 위해 서해 최북단 병원인 백령병원에 내과 전문의 1명을 배치했다. 인천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은 30병상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매년 공중보건 의사 7~8명을

행정의 파수꾼, 시민감사관 위촉



우리 시는 지난 9월 12일 ‘제8기 시민감사관’ 81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2년 단위로 운영되는 시민감사관제도는 지난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8기째를 맞았다.

이번에 위촉된 제8기 시민감사관은 사회복지, 환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시장의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제보와 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문의 : 시 감사관실 ☎ 440-3135

장애인 학대 신고·상담 핫라인 구축

우리 시는 지난 9월 2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경찰청 등과 장애인 학대 근절·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상담 핫라인 구축과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접수시 신속한 현장조치,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한편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지방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 전국 최초로 개관했다.

문의 : 시 장애인복지과 ☎ 440-2943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는 1년마다 교체되어 연속성을 갖고 주민을 진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추경예산을 확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채용해 지난 9월 15일부터 배치했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 440-2712

시민 행복 프로젝트 사업
193건 발굴

우리 시가 2018년도 ‘시민 행복 프로젝트’ 사업으로 193건을 발굴,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 최초 시행, 임신·출산 축하금 100만 원 지급,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한 문화공간 1천 개 조성, 택시 환승 할인제 등이 있다.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이들 사업은 예산 부서와의 협의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문의 : 시 정책기획관 ☎ 440-2133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추진 협약



우리 시는 지난 9월 21일 국립민속박물관과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국립민속박물관은 인천 지역 민속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정리를 추진해 유산의 발굴·보존, 콘텐츠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총 사업비 20억 원(국비 10억 원·시비 10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로 인천 도 시민속 조사, 마을박물관 조성, 유물 구입, 특별전 개최 등의 15여 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시 문화재과 ☎ 440-4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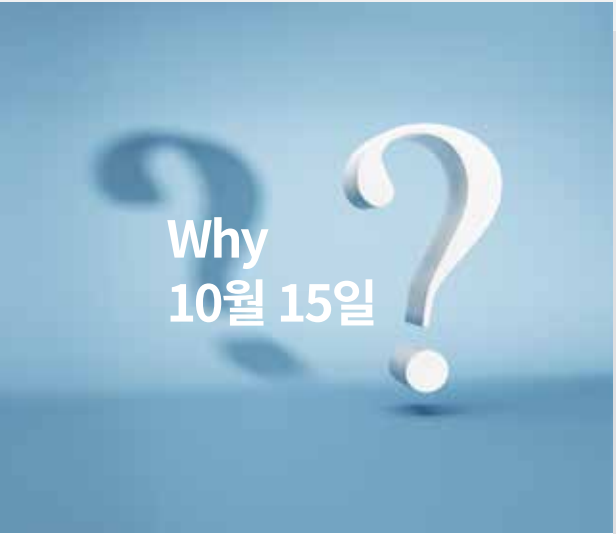
IMAGE
NEWS



#인천 시민이기에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
달력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10월 14일 #‘시민 대화합 한마당’ 개최
이날만큼은 #인천 시민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인천’이라는 지명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날
#1413년 10월 15일을 기념해 지정



기념식과, 운동회,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만나요!



COUNCIL NEWS



인천시의원 34명 전원, ‘나눔리더’ 가입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캠페인 ‘나눔리더’ 가입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회 의원 34명 전원은 나눔리더에 가입해 지역 사회 공헌을 다짐했다.

나눔리더는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새롭게 시작한 기부 프로그램으로, 100만 원 이상을 일시 기부하거나 1년 내 기부하기로 약정하는 개인 중·소액 기부자 클럽이다. 나눔리더가 낸 기부금은 인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광역 자치단체 의회(도·시의회) 의원 전원이 나눔리더에 가입한 것은 인천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또 34명이 동시에 가입한 것은 나눔리더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최대 인원이다. 이번 가입을 통해 인천 지역 나눔리더가 된 시의원들은 개인당 매월 10만 원씩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제갈원영 의장은 “시의원들이 인천 지역 복지와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함께 하자는 뜻을 모아줘 이런 기회를 만

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시민 가까이에서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리더가 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환 공동모금회 회장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의원들이 전국 최초로 전원 나눔리더에 가입한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며, “시의원의 나눔리더 캠페인 동참을 통해 나눔문화가 10개 군·구의회까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장병과 함께하는 의정 연찬회 개최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18, 19일 이틀간 강화도 석모도에서 2017년 의정 연찬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의정연찬회의 첫 일정으로 해병2사단 군부대를 방문했다. 북한 핵개발로 경색 국면에 처한 남북 관계와 인천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또한 제7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정보근앤컴퍼니 대표 정보근 박사의 ‘SNS를 활용한 시민소통 방법’과 신도시와 구도심의 생활 격차 개선을 위한 고종완 박사의 ‘신·구 도심의 효율적인 도시 재배치 방안’ 특강도 진행됐다.

이어 둘째 날에는 강화도 특산물인 고품질 쌀 재배지를 방문해 지역 특산물 지원에 대해 점검하고, 보문사 문화 관광 자원을 시찰하며 관광자원 활성화와 연륙교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로 우려되는 환경훼손 방지 대책 등을 모색했다.

제갈원영 의장은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희망찬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우리 시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7일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

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제홍 의원을 필두로 13명의 조사 위원들은 오는 12월 6일까지 3개월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SNS 관련 사실 여부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예정이다.

한편 조사특위는 지난 9월 8일 제2차 회의를 열

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했다.

조사 위원들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측의 후속사업은 의회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관련 행정 행위를 모두 중단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또한 “조사특위를 통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배경이 밝혀지고 향후 관련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청소년 의정교실’ 운영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지난 9월 18일 강화군 강화읍에 소재한 강화초등학교에서 학생회 임원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정교실’이 열렸다.

찾아가는 청소년 의정교실은 지리적 여건으로 시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찾아가, 의회를 소개하고 의정활동 체험 기회를 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홍보영상 시청, 모의의회 본회의 실연, 수료식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날 모의의회에서는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도서관 만화책 비치 조례안 등 2건을 상정해 학생들 입장에서 열린 찬반토론 후 표결절차를 통한 의결과정을 진행했다. 또 안건처리에 앞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비롯한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서비스 활성화 등 2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시정 질문도 있었다.

의정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의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시의회에 직접 가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산업경제위, 인천신용보증재단 일일 명예지점장 운영

인천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9월 11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역별 지점에서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위한 일일 명예지점장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등 의원들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일일 명예지점장에 임명되어 직접 현장에서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체감경기를 느끼며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행사였다.

첫날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이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에서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됐다. 이어 14일에는 정창일 의원이 남동지점, 15일에는 박병만 의원이 남부지점, 26일에는 유제홍 의원이 부평지점, 27일에는 김진규 의원이 서인천

지점, 28일에는 박승희 의원이 서인천점에서 각각 일일 명예지점장이 되어 재단을 운영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인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업 환경을 직접 체험해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보증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수요자에게 맞춤형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 ☎ 440-6137~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여러분만의 빛깔로
인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세요!

전혀 다른 계절의 향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게 소래습지생태공원에도 성큼,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계절, 여러분 어떠한 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나요?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브랜드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기간 : 2017년 10월 20일까지 / 문의 : ☎ 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굿모닝인천’ 9월호
컬러링 인천 당첨자입니다.



정은아 남구 경인북길



김미희 남구 주안5동



최한솔 계양구 장제로



황운숙 남동구 아암대로



최정미 남구 인하로



김시은 남동구 남동대로



임성은 서구 검단로

보고싶다 ‘굿모닝인천’
듣고싶다 ‘시민의 목소리’

1994년부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온 ‘진짜 인천, 진솔한 삶의 보고(寶庫)’
‘굿모닝인천’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독자 설문 조사

귀하의 성별과 연령을 표기해주세요.

성별 : (남 / 여) 연령 : (세)

Q1. ‘굿모닝인천’을 접해 본 경로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우편 배송
- 2)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 3) 학교, 도서관 등 교육기관
- 4) 지하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
- 5) 웹진/인터넷 서점 등 온라인 매체
- 6) 기타()

Q2. ‘굿모닝인천’은 다음 중 어떤 성격의
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인천의 도시 정체성 및 가치 홍보 매체
- 2) 시민 대상 시 주요 정책 공유 매체
- 3) 시민 대상 시정 활동 홍보 매체
- 4) 시민 대상 시정 성과 전파 매체
- 5) 문화, 생활, 관광 등 정보 제공 매체

Q3. ‘굿모닝인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
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대체로 만족한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Q4.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
- 2) 인천 시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 3)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 4) 기타()

Q5. ‘굿모닝인천’을 접한 후 인천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1) 매우 좋아졌다
- 2) 대체로 좋아졌다
- 3) 특별한 변화가 없다
- 4) 대체로 안 좋아졌다
- 5) 매우 안 좋아졌다

Q6. ‘굿모닝인천’ 발행 형태는 오프라인(종이
책)과 온라인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 1) 오프라인(종이책)
- 2) 온라인(이북, 웹진)
- 3) 오프라인(종이책) 중심 온라인(이북, 웹진) 동시 발행
- 4) 온라인(이북, 웹진) 중심 오프라인(종이책) 동시 발행

Q7. 문항 Q6의 답변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Q8. 향후 ‘굿모닝인천’에서 추가/보강되었
으면 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독자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후

1) 우편 또는 2) 홈페이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후 사진파일첨부/또는직접가제)로 접수하세요.

보내는 방법은 좌측 페이지 하단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응모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굿모닝인천’ 9월호 독자 설문 당첨자입니다.

정정순(남구 송의동), 김정빈(서구 송학로), 이영신(부산시 서구), 서공주(창원시 진해구), 이종욱(부평구 부흥로), 황문상(연수구 청학안로), 박찬숙(동구 화수로), 이정행(서구 연희동), 박소연(연수구 송도문화로), 정용현(부평구 안남로), 전영신(부평구 체육관로), 백솔미(부평구 부평북로), 임선미(동구 방축로), 오예진(연수구 한나루로), 김영혜(부평구 부평동)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40 차세대 여성 리더-미래 여성 인재’ 과정 교육생 모집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체험형 특화 교육을 실시하는 ‘2040 차세대 여성 리더-미래 여성 인재’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대상 : 관내 특성화(마이스터고 포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학년 여학생

교육기간 : 10월 25일(수)~10월 26일(목)

신청기간 : 10월 13일(금)까지

신청방법 : 학교장 추천(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교육비 : 무료(인천시 전액 지원)

교육기관 : 인하대학교

교육내용

(교양) 대학의 미래와 여성 리더의 역할, 특성화 고등학생 대상 진로 진학 설명회

(리더십)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리더십 역량 강화, 선배와의 멘토링

(진로)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비 맞춤형, 체험형 생생(生生) 진로 특강

(인천 가치 재창조) 현장 탐방을 통한 인천의 역사와 발자취, 현재와 미래상 고찰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697

‘흙에서 찾은 인천의 옛 흔적’ 특별전

검단선사박물관이 인천의 주요 발굴 조사 유적 6개소에서 출토된 청동기~삼국 시대 유물을 공개하는 특별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 청동기~삼국 시대 구월동, 검암동, 연희동, 가정동, 영종도 운남동, 강화 신리-장정리 등 인천 지역에서 최근 출토된 유물

기간 : 10월 29일(일)까지

장소 : 검단선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문의 : 검단선사박물관 ☎ 440~ 6790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안내

우리 시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 : 만 75세 이상(1942년 이전 출생자) : 9월 26일(화)부터

만 65세~74세(1943~1952년 사이 출생자) : 10월 12일(목)부터

접종 방법 : 지정 의료 기관을 통해 11월 15일(수)까지 무료 접종 가능

*보건소는 11월 16일(목) 이후 백신 소진 시까지 무료 접종 지속

문의 : 시 보건정책과 ☎ 440-2742

2017 제3회 경인아라뱃길 리딩보트 참가자 모집

2017년 ‘제3회 경인아라뱃길 리딩 보트(Reading Boat)’가 개최됩니다. 이외수 작가의 인문학 특강과 인천 문학 작가 김영승 시인의 시낭송 등으로 알차게 채워질 이번 리딩 보트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10월 13일(금) 오후 2시~6시

모집 기간 : 10월 10일(화)까지

모집 대상 : 만 14세 이상 국내 거주자 400명

신청 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또는 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anyedu.seo.incheon.kr) 참조

내용 : 이외수 작가 인문학 특강, 김영승 시인과의 시낭송, 퓨전 국악 공연 등

승선 장소 : 정서진아라터미널

문의 : 서구청 ☎ 560-5914

접경 지역 평화의 섬 교동도 길 걷기

황해도 북녘 땅이 보이는 강화군 교동도에서 ‘섬과 사람을 잇는 다리, 통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접경 지역 평화의 섬 교동도길 걷기’를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시 : 10월 21일(토) 오전 9시 30분

장소 : 강화군 교동도

걷기 구간 : 교동대교~(구)교동교회~월선포~해안제방~교동읍성~교동제비집(8.4km)

참가 대상 : 가족, 동호회, 일반인 등 1천여 명

접수 방법 : 인터넷(peaceisland.co.kr) 접수

참가비 : 1만 원

프로그램 : 개회식 및 축하공연, 섬 길 걷기, 부대행사 등

문의 : 인천관광공사 ☎ 899-74700 / 경인일보 ☎ 872-9000 / 사무국 ☎ 427-2017



‘인천 백미(白米)’展 개최

인천시립박물관이 2017년도 하반기 작은 전시로 ‘인천 백미(白米)’展을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시 내용 :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의 쌀 집산지였던 인천항을 배경으로 성장했던 인천 미두취인소(米豆取引所)와 정미업에 얽힌 이야기

전시 기간 : 9월 26일(화)~2018년 2월 4일(일) /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은 휴관

관람료 : 무료

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 440-6734

국립생물자원관 ‘제12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 안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12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를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상식 일시 : 10월 18일(수) 오후 3시

시장식 장소 : 전시관 시청각실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상작 전시 일시 : 10월 18일(수)~11월 30일(목)

수상작 전시 장소 : 전시관 내

문의 : 국립생물자원관 ☎ 590-7000

08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 ‘강화 역사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에서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강화 역사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 : 마감 시까지(선착순 70명)
신청 대상 :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비 : 무료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ifac.or.kr) 또는 전화(☎ 440-6796)
문의 :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 ☎ 440-6796

[아카데미 안내]
기간 : 10월 24일(화)~11월 28일(화)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9시(총 6회)
장소 : 검단선사박물관 1층 2전시실
주제 : 강화와 전쟁

일시	제목	강사
10월 24일	병자호란, 자초한 전쟁인가?	우경섭 인하대 교수
10월 31일	고려말 왜구와 강화	이형우 인천대 교수
11월 7일	몽골은 왜 강화도를 공격하지 못했나	윤용혁 공주대 교수
11월 14일	개성부원록으로 본 병인양요	임용한 KJ&M 인문경영연구원 대표
11월 21일	운요호호 사건과 강화도조약	이영호 인하대 교수
11월 28일	한국전쟁과 강화 지역 유격대의 활동	박동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10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민 공개강좌’ 개최

인천시립극단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시민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좌 내용 : 인천이란 도시는 어떻게 성장 발전되어 왔는가
강사 : 김용하(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시 : 10월 15일(일) 오후 2시
장소 : 인천시립극단 연습실
참가 신청 : 인천문화예술회관 또는 인천시립극단 홈페이지 참조
*인천문화예술회관 : art.incheon.go.kr
*인천시립극단 : www.artincheon.or.kr
신청 기간 : 10월 11일(수)까지 선착순 30명
문의 : 인천시립극단 ☎ 420-2060

‘시민 참여 공감 복지 오디션’ 아이디어 공모

우리 시가 시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복지 시책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공감 복지 오디션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 인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 및 제도
기간 : 10월 11일(수)까지
공모 자격 : 국민 누구나(개인/단체)
분야 : 복지 관련 모든 분야
시상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10만 원~최대 500만 원)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incheon.go.kr) 또는 우편, 방문(우21554,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 공감복지과), 팩스(☎ 440-8654) 접수
문의 : 시 공감복지과 ☎ 440-3462~3

11

‘인천의 12가지 이야기와 스토리텔링’ 교육 안내

우리 시가 후원하고,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인천을 이야기하다-인천의 12가지 이야기와 스토리텔링 교육 과정’을 안내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 인천의 12가지 이야기
*문학·건축물·지도·섬·음식·영화·전쟁·사건·인물·풍속·산업/경제·학교
내용 : 인천을 널리 알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과정
장소 및 일시
부개도서관 : 9월 5일(화)~12월 12일(화) /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 10월 11일(수)~11월 29일(수) / 매주 수요일 오후 2~6시
계양구청 : 10월~11월 중(세부 일정 미정)
문의 : 인천평생교육진흥원 ☎ 722-7231



12

어린이 공연 페스티벌

학산생활문화센터는 어린이 공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연 : 옛날 옛적 호랑이가 어흥
일시 : 10월 12일(목)~14일(토) 평일-오전 9시 30분, 11시(단체) / 토-오후 4시
대상 : 누구나
장소 : 학산소극장 4층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관람료 : 1만 원(남구주민 50% / 단체 50% / 아빠 무료)
문의 : 남구학산문화원 ☎ 866-3994

13

가족과 함께하는 ‘학산 가족 음악회’

학산생활문화센터는 가족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한 공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연 : 학산가족음악회 ‘Dream of Island’
일시 : 10월 25일(수) 오후 7시
대상 : 4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
장소 : 학산소극장 4층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무료/선착순 전화 접수)
문의 : 남구학산문화원 ☎ 866-3994

14

‘2017 가을맞이 국화꽃 전시회’ 개최

인천시가 제53회 인천 시민의 날을 맞아 ‘2017년 가을맞이
국화꽃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소 : 월미공원, 중앙공원, 강화군 새우젓 축제장
기간 : 10월 15일(일)까지
부대 행사
행사 내용 : 손수건 꽃물 들이기, 압화 책갈피 만들기, 허브 화분 나눠 주기 등
일시 및 장소 : 10월 15일(일) 오전 10시~12시 / 월미공원
문의 : 계양공원사업소 ☎ 440-6591

15

‘적극적인 부모 역할 훈련-AP NOW’ 프로그램 안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에서 ‘적극적인 부모 역할 훈련-AP NOW’를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집 대상 :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모집 인원 : 10명
비용 : 무료(교재비 별도)
교육 일정 : 10월 16일~12월 4일까지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 인천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
접수 : 전화(☎ 887-8458) 또는 이메일(incheon-yegrina@naver.com)
문의 :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 ☎ 887-8458

치매 환자 가족 통합 지원 프로그램 ‘휴休식識공共간看’

인천광역시치매센터에서 치매 환자 가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인 ‘휴休식識공共간看’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대상 : 인천시 거주 치매 환자 가족

교육 내용 : 개강 및 자기 힐링 프로그램, 치매 바로알기, 치매 노인 돌보기, 인지 증진 프로그램, 부양 스트레스 경감, 정신적 건강 관리, 신체적 건강 관리, 종강 및 수료식

교육 일시 : 10월 17일~12월 5일(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총 8회))

교육 장소 : 인천광역시치매센터 프로그램실

교육비 : 무료

신청 기간 : 10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 전화 접수(☎ 472-2029)

문의 : 인천광역시치매센터 ☎ 472-2029



‘제2회 문학산상 음악회’ 행사 안내

인천시가 제53회 인천 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제2회 문학산상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문학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낭만적인 가을 음악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10월 14일(토) 오후 6시~8시

장소 : 문학산 정상부(남구 문학동 164-69번지 일원)

대상 :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OBS경인TV

주요 프로그램 : 클래식&대중음악의 콜라보 공연

*연주 : 인천시립교향악단 오케스트라(지휘자 이경구)

*출연진 : 테너 김남두, 바리톤 김종표, 소프라노 김영미, 뮤지컬 가수 양준모, 가수 소향, JK 김동욱

제2회 남동문화생태 ‘누리길 걷기 대회’ 개최

남동문화원이 ‘제2회 남동문화생태 누리길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함께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이번 걷기 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10월 21일(토) 오전 9시

모집 장소 : 인천대공원 호수공원

걷기 코스 : 인천대공원 호수공원→남동문화생태누리길→남동체육관(반환점)→인천대공원 호수공원

접수 기간 : 10월 20일(금)까지 선착순 500명

기념품 : 스포츠 타월(완주 시)

이벤트 : 구간별 전시 및 공연, 경품 추첨 및 간식 제공 등

문의 : 남동문화원 ☎ 468-1715

인천에서는
쉽게 볼 수 있어요~
큰주홍부전나비

글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홍보팀



큰주홍부전나비(Lycaena dispar)
원작자 배양섭,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인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인천하면 떠오르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최초의 짜장면이 탄생한 차이나타운 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인 인천대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인천에서 더 잘 볼 수 있는 생물도 있을까?

인천에는 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지만, 특히 잘 발견되는 종이 있다. 이맘때쯤 강이나 하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주홍부전나비’가 그렇다. 큰주홍부전나비는 북한과 인천의 섬들에 한정적으로만 분포한다.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인천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다. 요즘에는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함에 따라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관찰되고 있기도 하다.

큰주홍부전나비는 5월부터 10월까지 만날 수 있다. 초원성으로 민첩하게 짧은 거리를 날아다니며 개망초, 민들레 등의 꽃에서 꿀을 먹는다. 수컷은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선명한 주황색 날개를 가졌지만 암컷은 흑색 무늬를 가지고 있다. 수컷은 오전에 풀잎 위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점유행동을 한다. 암컷은 마디 풀, 참소리쟁이와 같은 애벌레의 먹이식물 잎이나 마른 풀에 여러 개씩 알을 낳는다. 부화한 애벌레는 먹이식물의 잎 아랫면에 구멍을 내어 잎살을 갉아먹으며 성장한다.



10월은 큰주홍부전나비를 만나기 딱 좋은 계절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서구 공촌천, 시천천, 심곡천 주변이나 수도권매립지와 종합환경연구단지가 위치한 경인아라뱃길 근처에서 큰주홍부전나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큰주홍부전나비를 보러 가는 길에 드림파크 야생초화원과 우리나라의 자생생물 식물 표본을 볼 수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을 둘러봐도 좋다. 해가 저물 때쯤에는 경인아라뱃길 산책과 함께 정서진에서 바라보는 해넘이도 추천한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큰주홍부전나비와 함께 낭만 가득한 가을 추억을 만들어 보자.

일상의 소요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상하게 무기력하고, 마치 무중력의 공간에서 숨 쉬고 있는 것 같은 토요일 오전이었다. 문화원의 프로그램 운영상 토요일 근무는 가족 단위나 인근 거주 주민들의 방문이 자주 이루어진다. 오전부터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어 공연히 마음은 분주한데 무언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나른함에 묻혀 있을 무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부부와 아이가 있었다. 한눈에도 다문화 가정으로 보였다. 그들은 서툰 한국말로 한국어 교습을 문의했다. 한국어 교습이 진행되는 인근 다문화센터 연락처와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동안 짧은 대화를 이어갔다. 부부의 국내 거주 기간은 5년. 하지만 일곱 살 된 딸은 이제 막 석 달째 접어들고 있었고, 어린이집에서 언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고심 끝에 센터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경찰 공무원이던 아버지를 따라 전국팔도를 무대로 학교를 다녔던 나는 지방 사투리가 외국어만큼이나 생경했다. 전학 갔던 학교에서도 늘 혼자이던 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러한 시간을 지나, 인천이라는 도시에 터를 잡으신 부모님 덕에 인천 사람으로 40여 년을 살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출신 부부의 애달픈 마음이 느껴져 학습지 회사에 상담을 등록하고, 문화원의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부디 그들이 인천에서 편안히 자리 잡기를 바랐다. 몇 해 전 베트남 호이안 지방을 여행했던 얘기도 하며 이런저런 수다로 대화를 이어갔다. 남편은 인하대학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부인은 남편과 더불어 한국살이를 하다가 이제 비로소 자신감이 붙어 딸을 한국에서 기르실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중이었다.

가족이 돌아간 뒤, 그저 눈만 깜박이던 오전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난 나를 발견했다. 보이지 않는 탄생 좋은 투명실로 엮어진 인연의 실타래처럼, 나의 일상으로 연결된 가족 덕에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특별한 한 주였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베트남을 방문해 연유 섞인 진한 그들의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글 최지은 팀장
(남구 학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혼자 걷는 길은 없다 - 류시화 시인의 페이스북 글 중

현대인의 병이라고도 표현되는 고독은 아마도 서로 간의 진정한 교류 부족에서 오는 마음의 병이 아닌가 싶다. 고독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같이 가는 길을 조용히 즐기는 법도, 혹은 같이 가는 그 길을 재미나고, 이왕이면 든든하게 가는 법도 터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미풍 부는 장독대

송현동 100번지 양키시장 건물 옥상입니다.
햇살 좋은 가을날, 장독 속에서 고추장, 된장, 간장이 잘 익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IoT, 인공지능 등 제아무리 과학이 날뛰어도
햇볕과 바람이 익히는 장(醬)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곳에, 모든 걸 끌어버리는 개발의 거센 광풍이 아니라
장독 속을 맛있게 익히는 ‘미풍’이 불었으면 합니다.

- 동구 송현동